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社會背景/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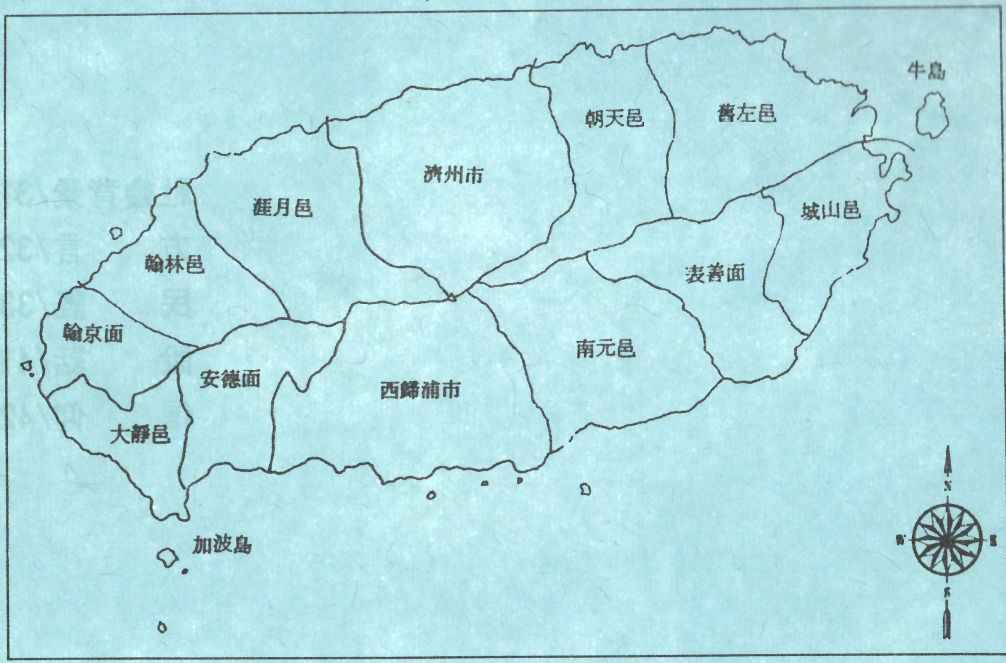
方 言/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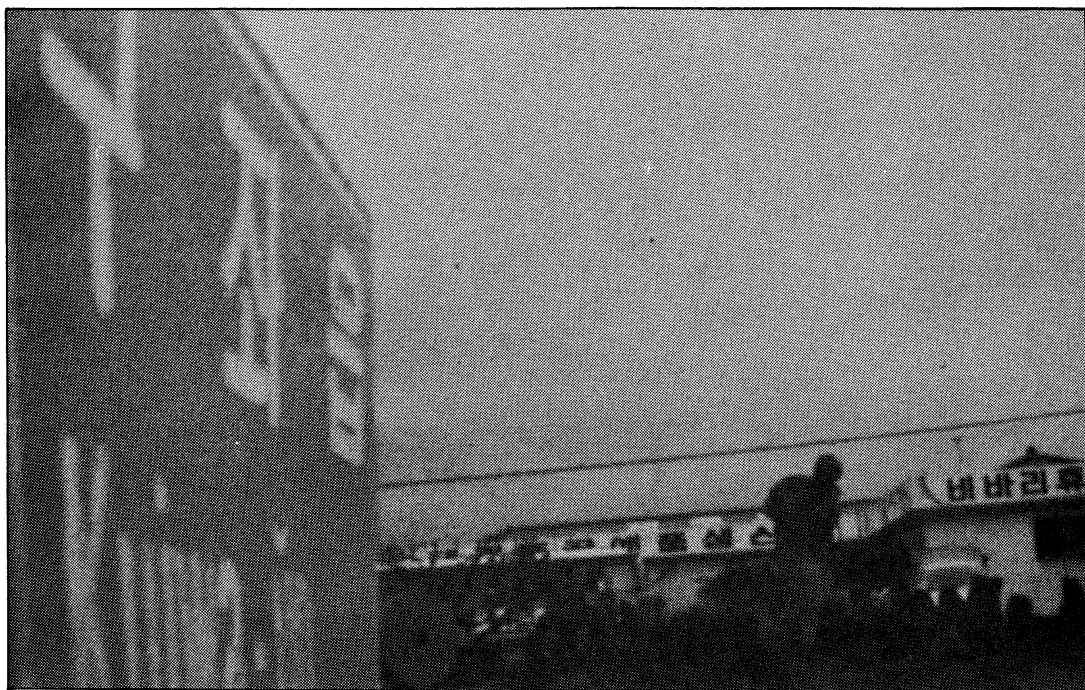
民 謠/337

說 話/419

信 仰/429

마을약도





마을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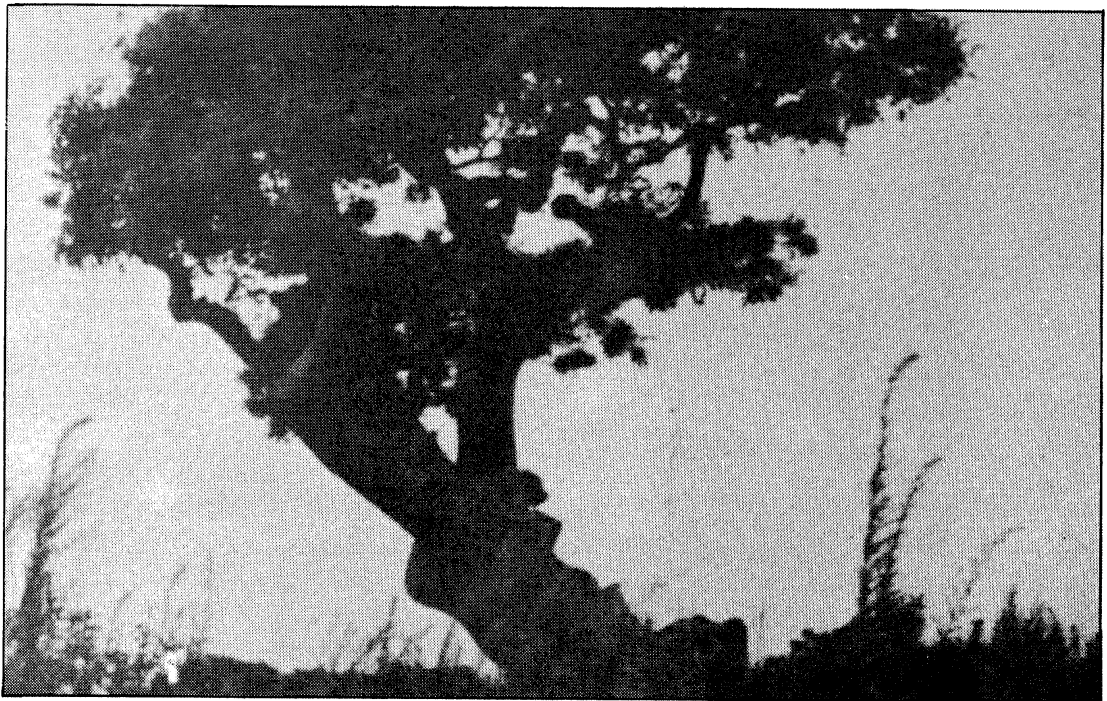
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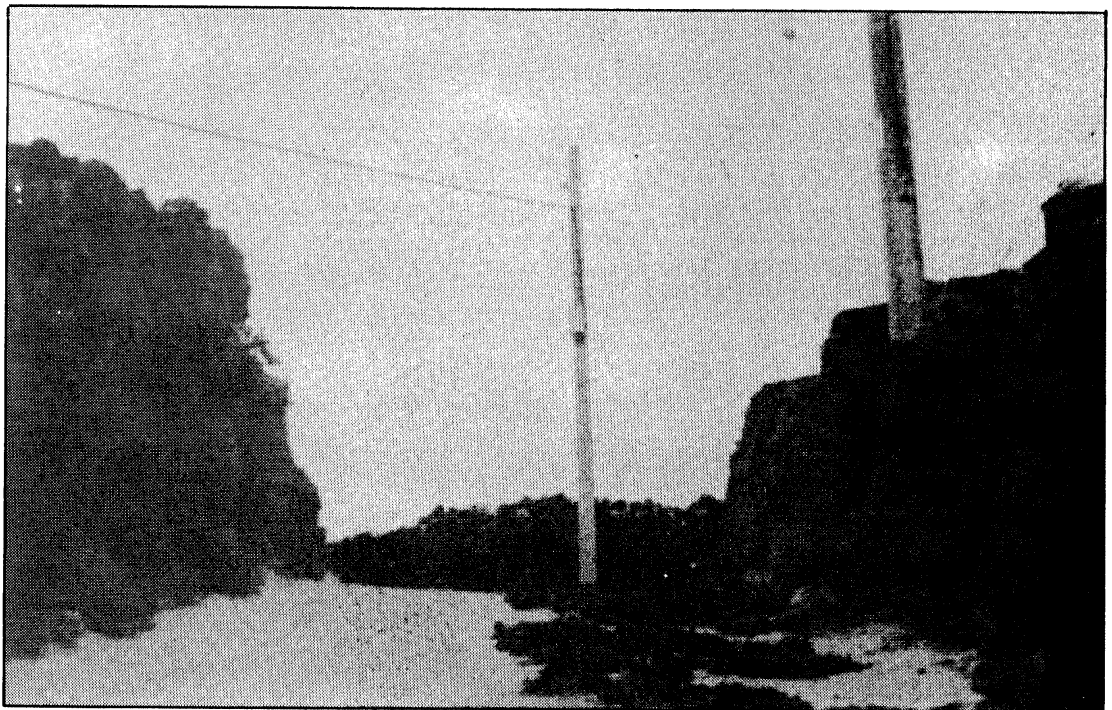
본향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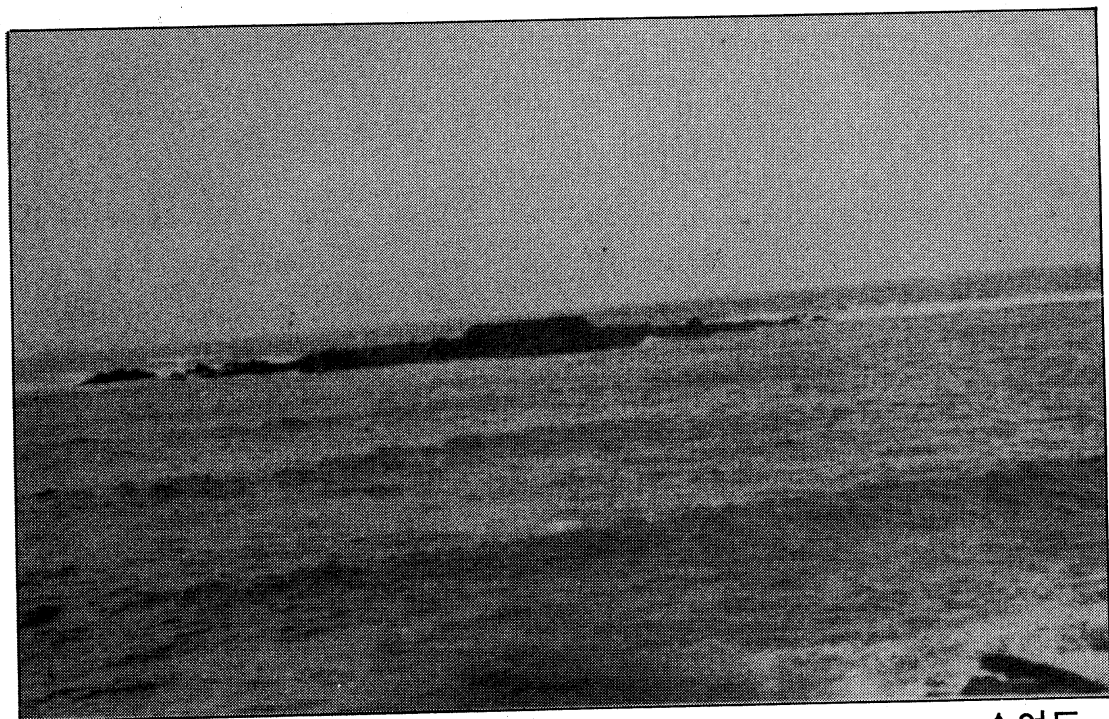
본향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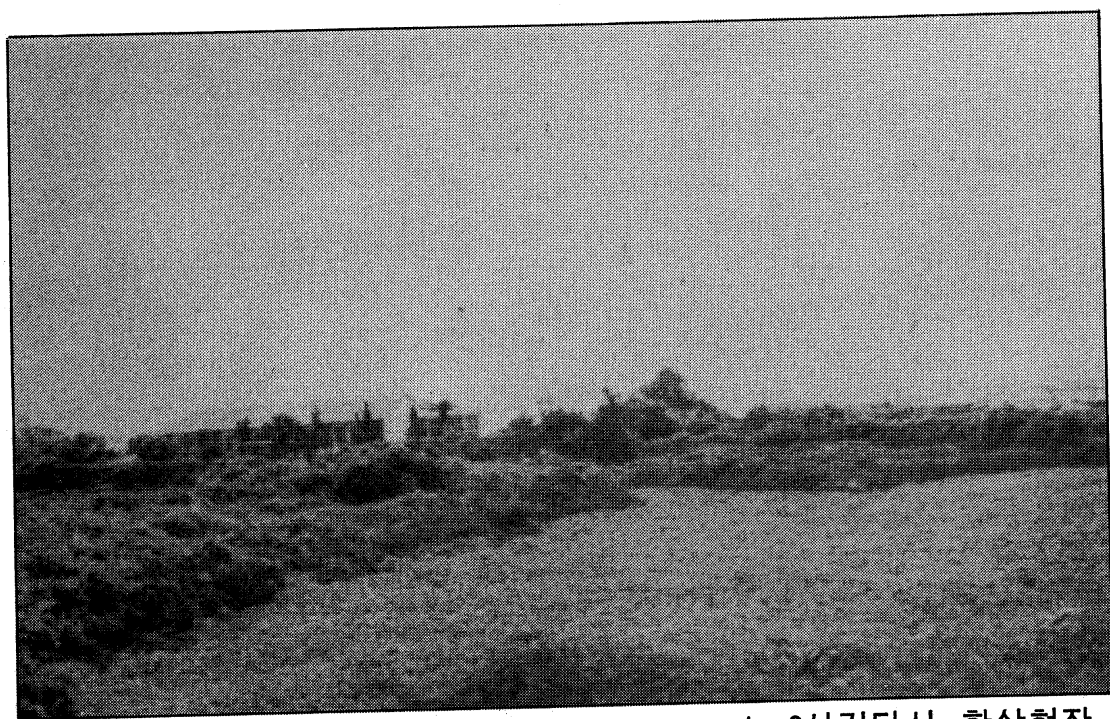
팽나무



하망동산



소여도



4·3사건당시 학살현장

社 會 背 景

指導教授：金相助

班 員：吳彰進(4) 金京甫(4)

李美貞(3) 金玉順(3)

宋承姬(2) 李明珍(2)

康恩湊(2)

目 次

I. 地理的 環境

II. 歷史的 環境

III. 人文概況

IV. 產業構造

마을은 나와 他人이 모여 사는 가장 기초이며 최소단위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社會的 意味의 모든 요소와 행위가 축약되어 있다.

본 학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갖는 학술조사를 5個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배경팀은 東福里의 지리적 환경·사회적 배경·그 마을의 형성과 변천 과정 및 生活史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 地理的 環境

제주시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19.9 km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 東福里는 구좌읍의 가장 서쪽에 있어 西金寧里와 조천읍 북촌리에 인접한 부락이다.

총 면적 54.3㎢인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4個洞으로 나뉘었으며 일주도로변을 中心으로 해안가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해안가 근처에는 봉수대의 역할을 했던 하망(下望)동산이 있고 인접부락으로는 동쪽엔 西金寧, 서쪽엔 北村里, 남쪽에는 善屹, 북쪽에는 바다가 있다.

한편, 해안과 접해있는 까닭으로 〈큰여〉, 〈작은여〉 등의 여가 있고, 해양자원으로는 패류·돛·우뭇가사리 등을 채집하고 있으며, 토양은 대부분 척박한 화산땅이어서 마늘과 같은 특용작물이 적합하다고 한다.

Ⅱ. 歷史的 環境

곶막(邊幕) 또는 꼴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東福里의 設村由來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여 년을 거슬러 올라 간다.

壬辰倭亂을 전후한 서기 1600년 경에 「꼴막」이라는 해변가에 속칭 「하망(下望)동산」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김녕 현청에서 「망별장(望別掌)」을 파견하였는데 이 망별장 李氏의 딸과 朴秀東이라는 사람이 인연을 맺어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 마을 최초의 정착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은 設村 당시부터 260여 년 동안을 인근 金寧里의 부속 마을이었으나 1875年 乙亥年(고종 12년) 당시 초대 警民長이었던 愼永洙씨 등이 중심이 되어 김녕리에서 독립시키고, 里名을 東福里라 칭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東”은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고 “福”은 “해가 뜨면 먼저 동쪽에 빛을 비춰주어 영광과 복이 온다”는 뜻으로, 당시 里民들이 복된 마을을 추구하고, 새로운 마을로 발전시키자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명명하였다고 한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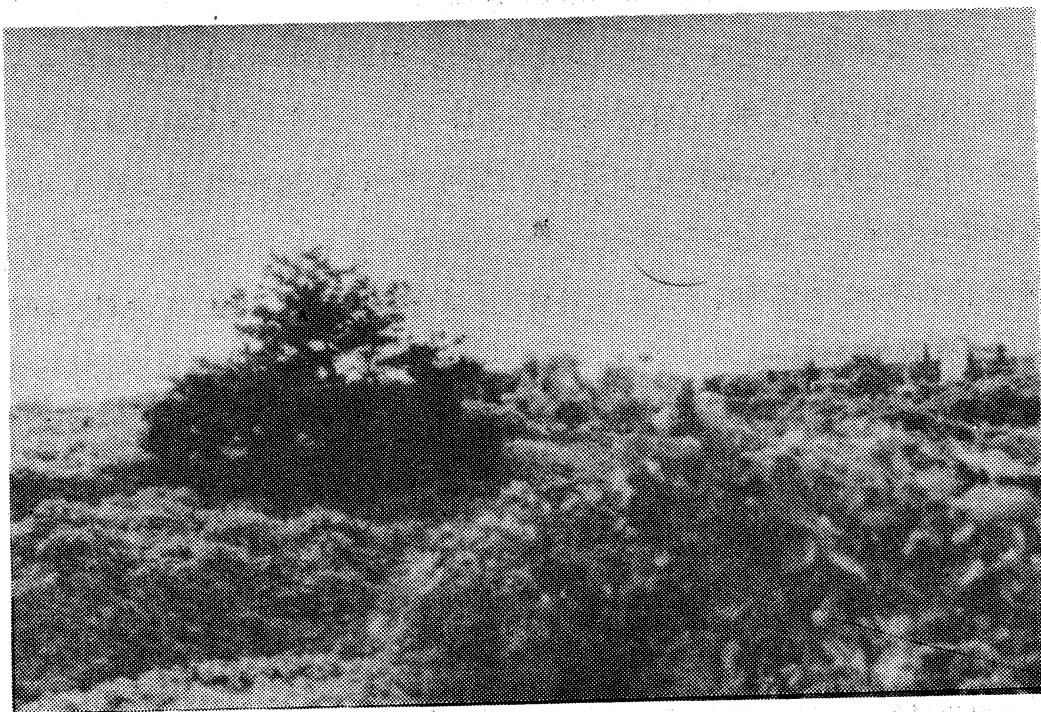
7代에 걸친 警民長 제도가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되고 일제하에서는 區長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초대 구장은 金達千氏가 맡아 무려 31년을 재직하면서 지금 마을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마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옛날에 이 마을은 〈안카름〉, 〈동카름〉, 〈서카름〉 이렇게 3個의 동네로 구분되어 동카름 내에서는 “장상물”을, 안카름에서는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설촌 당시부터 식수로 이용했던 “민물”을, 서카름에서는 서쪽에 있는 “도화치물”을 중심으로 동네를 번성시켰는데, 지금의 동카름은 東上洞, 서카름은 西上洞과, 西下洞, 안카름은 東下洞으로 개칭되었고 그 당시 식수로 이용되었던 물들도 상수도의 보급으로 인해 점차 사용되지 않아 모두 폐쇄되었다.

마을 앞바다에는 〈작은 여〉가 솟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人工으로 쌓은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150여 년 전,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전체의 안녕과 큰 사람이 나기를 바라면서 테우를 동원하여 10여 일 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舊左邑誌〉나 정비석의 〈명기열전〉에 보면 1794년(정조14년)에 5년 간의 잇따른 흉년으로 제주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에 6만 4천여 제주인을 구출한 金萬德(1739~1812) 할머니가 이 마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본 조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하여 본 바는 자신들도 최근에야 월간지를 보고 알았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대로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제주도 현대사를 살펴볼 때 동북리는 4·3사건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역이다. 본 조사자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던 동북분교 뒷밭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였는데, 이곳 주민들은 입을 모아 억울한 죽음에 대한 4·3의 신원을 바라고 있었다.



Ⅲ. 人 文 概 況

동북리는 4개의 자연부락 즉, 동상동 · 동하동 · 서상동 · 서하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 10월 1일 현재 189가구 단독가구수: 27, 2세대 이상 가구수: 162에 男子가 376名, 女子가 424名이다.

〈표 1〉 연령별 인구현황

(1988년 10월 1일 기준)

구분 성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男	18	35	41	48	58	49	26	11	21
女	14	35	33	49	39	39	31	13	15
계	32	70	74	97	97	88	57	24	36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구분 성별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80	80
男	25	14	12	6	5	3	3	1
女	31	24	29	13	18	16	6	19
계	56	38	41	19	23	19	9	20

* 자료 : 상주인구조사 김녕출장소 제공

* 81세 이상은 80세란에 포함 작성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50세 이상에 이르면 男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Ⅳ. 産 業 構 造

동북리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半農 半漁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이한 것은 3차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광휴게소가 3개소나 있는데 이것은 일주도로가 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 農 業

농업에 있어서 우선 농기구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농기구 현황

종류 갯수	동 력 절 단기	예취기	동 력 탈곡기	농 용 원동기	동 력 분무기	곡 물 건조기	동 력 경운기	농 용 양수기
	16	25	6	1	20	1	40	20

* 자료 : 구좌읍사무소, 1988.

濟州島部落誌(Ⅳ)

농산물은 일반농업인 밭농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토질이 양호하지 못하고 경작지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수원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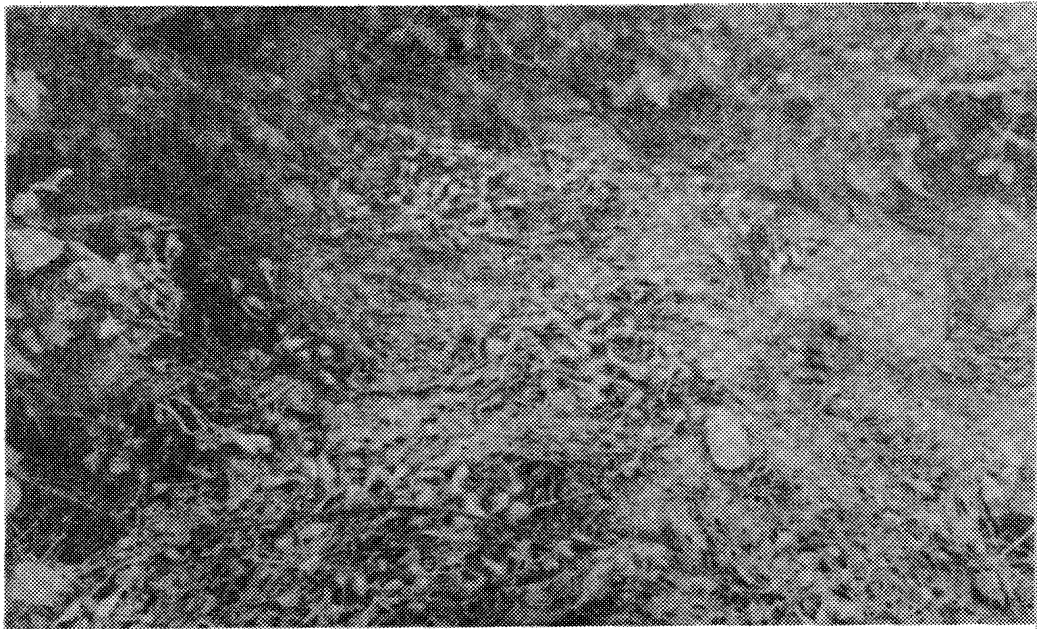
다음으로 생산량에 대해 알아보면,

〈 표 2 〉 작물별 생산량

(단위 : t)

구분 단위	육 도	맥 주맥	과 맥	대 두	소 두	녹 두	기 타 두	고 구 마	조	메 밀	양 과	마 늘	락 교	유 채	땅 콩	참 깨
	5	135	37	30	1.5	9	1	7	26	1	700	139	240	7	3	4

1988년도 작물별 생산량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용작물인 락교(염교)이다. 즉, 토질이 비옥하지 않은 동북리는 성산읍 난산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주요 소득작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1988년에는 락교를 재배해 많은 수입을 올렸으나, 1989년에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미국산·중국산 락교가 대량으로 출하되어 전년보다 갑절이나 많은 500 t의 양이 밭에 버려졌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이후 농업정책의 실책이며 앞으로 정책 전환의 확대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2) 漁 業

〈 표 3 〉 어장 현황

어 장 별	건 수	면 적(ha)	주 요 생 산 물
제 1 종 공동어장	1	370	소라, 성게, 톳, 천초, 기타
정 치 망	1	3	방어, 기타 잡어

* 자료 : 수협김녕출장소, 198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라·성게·톳·천초 등을 생산해내는 근원인 제 1 종 공동어장이 370 ha로 구좌읍 관내 타 어촌계보다 매우 좁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입 역시 적다.

한편, 어선 보유상황을 보면 동력선 3척, 무동력선 3척이 있으나, 2 t 미만 이 4척이나 차지해서 영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전 지역 어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 연해어업에 머물러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어획 현황을 보면 〈 표 4 〉와 같다.

〈표 4〉 해산물 어획현황

년 도		'87 년		'88 년	
		수 량 (kg)	금 액 (만원)	수 량 (kg)	금 액 (천원)
양	소 라	3,000	1,600	3,600	20,219
식	성 계	500	800	270	4,067
어	툫	12,000	4,500	10,313	30,466
업	천 초	6,000	1,300	18,102	41,991
어	돔 류			2,083	25,110
획	잡 어			9,050	44,890
을	생 선				

위의 〈표 4〉를 통해서 어획에 있어서는 돔류와 오징어·갈치 등 잡어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양식(1종 공동어장에서의 수입)에 있어서는 소라·성게·툫·천초 등이 주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통계자료에서는 분석이 힘들지만, 패류(소라, 전복)의 경우는 그간의 남획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수협 김녕출장소 소장의 증언 및 해녀들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갯고동·성게 등의 대체어획으로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며, 갯고동의 경우 좋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한다.

3박 4일의 조사기간이 부분적인 접근에 그쳐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 이란 꽤 힘든 일이었다.

즉, 산업구조나 인문개황이 거의 행정당국에 의해 조사된 것에 의존한다거나 자료공개의 한계성 및 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난점을 지녔다.

다음 조사부터는 설문지 작성이나 면담에 의한 성의있는 조사가 필요하리 라고 본다.

方 言

指導教授：金洪植・姜榮峯

指導補助：玄桂哲

班 員：姜男勲(4)・金大元(4)

金在慶(3)・李宰淑(2)

金貞姬(2)・許辛子(2)

吳根善(2)・金順枝(2)

김연희(2)

目 次

I. 해산물명(海産物名)

IV. 지명(地名)

II. 농산물명(農産物名)

V. 기 타

III. 농기구명(農機具名)

○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서는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물고기명, 농기구명, 농산물명, 지명 등을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다.

동북리는 동상동, 서상동, 동하동, 서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 동북은 총 80여 호, 700여 명의 주민, 총 면적 150만 평, 경지는 100헥타, 호당 200만원 정도의 연수입을 올리는 반농반어의 생활형태를 지닌 부락으로 해녀들이 많이 있어 해산물명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조사에 임하면서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수산 일반향토 교육자료',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를 준비하였으

며, 그것들을 이용하여 면담·조사를 통해 어휘들을 채록하였고 조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 과정을 녹음·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지 조사 첫날에는 동북 이장과의 만남을 통해 마을 지리를 익히고 ‘당’이나 ‘해녀 탈의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조사에 필요한 제보자 선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인 해산물명과 농기구, 지명 및 기타 작업을 채록해나갔다.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학술조사 경험의 미비로 힘들었으나, 선배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점차 실질적인 채록을 할 수 있었다.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어휘들은 비교적 쉽게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고 농기구에 있어서는 그 사진이 他지역의 사진이어서 제주도와는 부분적으로 달랐으나 보충설명을 곁들이다보니 복잡한 농기구의 부분적인 명칭 등을 채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어류명의 경우에는 표준어 고기명과 방언 고기명을 제보자와 조사자가 확실한 지식이 없어 힘들었다. 이에 방법을 달리하여 제보자 선정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 단순히 고령의 노인 선택이 아닌 40대 이상의 현 생산적 제보자(예: 해녀, 어부 등)를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채록하고, 조를 2개조로 편성, 시간의 절약과 활동공간을 넓혀나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동북리 지역이 좁은 관계로 제보자 선정이 협소하였고, 채록과정에서의 미숙으로 정확한 이름을 채록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었다. 또한 채록이 주로 해산물명에 집중되어 식물류명의 채록은 거의 힘들었다. 지명에서는 마을의 경계, 이름의 유래 뿐만이 아니라 바다이름, 오름, 못, 식수로 사용되던 이름 등도 조사하였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막연히 느껴왔던 지역간 방언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조사 전 각 조의 예비모임을 통한 예비답사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준비, 제보자 선정문제, 끝으로 동북리 특수상황(4·3 피해지역으로 700여 명이 죽어, 약 100여 명 정도의 생존자가 있었으며 이들도 몇 년

동안 동북리를 떠나 생활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의 제보자들은 그 당시 20세 안팎으로 동북리의 지형과 특유의 방언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

* 표준어는 확실치 않을 경우 방언만 기록함.

I. 해산물명(海産物名)

가. 어 류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	팽이상어	① *도 랭 이	
2	돌묵상어	② *모 도 리	
3	목탁가오리	밥죽, 밥자	
4	날메롱이	아 이 리	
5	달거리	통 두 건	
6	가다랭이	③ *	
7	점다랭이	멍텅구리	
8	빨 돔	황 돔	
9	자바리	다굼바리	
10	능성어	구궁쟁이	
11	별우럭	북바리	
12	흑뽕어돔	구 릿	
13	용치놀래기	④ *어랭이	실어랭이송, 몰어랭이古
14	범 돔	⑤ *독대기	
15	놀래기	코생이	
16	노래미	줄 락	

濟州島部落誌(Ⅳ)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7	술치	쭈시기	
18	양태	장태	
19	가재미	납세미	
20	광어	광어	
21	멀치	멜	
22	줄삼치	십이가스	
23	재방어	저립	
24	전갱이	각재기	
25	부시리	히라수	
26	눈불대	북조기	
27	벤자리	벤자리	
28	아홉동가리	논쟁이	
29	자리돔	자리	
30	독가시치	따치	
31	별방독	덤불랭이	
32	우럭불락	방장우럭	

나. 패류

번호	표준어	방언	동사류 및 참고어휘
1	소라	구쟁기	
2	오분자기	오분작	
3	구멍밤고동	먹보말	
4	말전복	암전복	납작하다
5	등근전복	숫전복	등갈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6	시볼트전복	마드래	큰전복
7	납작소라	수드리보말	
8	눈알고동	⑥ * 돌보말	
9	파달고동	소래고동	
10	아기사갓조개	쟁비름	쟁배름
11	군 부	군 벳	
12	군 소	글맹이	물도새기
13	팔알고동	고매기	
14	대수리	메옹이	
15	나팔고동		
16	두드럭고동	소라고동	
17	줄군부	군 벳	

다. 해조류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	파 래	포 래	
2	가시 파래	가시리	
3	청 각	정 각	
4	너 패	넙 패	넙은미역
5	미역 (쇠)	메역 (새)	
6	구슬모자반	듬북	
7	팽생이모자반	노랑쟁이	
8	툇	톨	

濟州島部落誌(Ⅳ)

9	감 태	감 태	
10	김	헤 우	
11	도 박	갯고도리	
12	우뭇가사리	우 미	

(주) ①② 동북리에서는 ‘도랭이’ ‘모도리’를 상어라 하지 않음

③ ‘멍텅구리’는 우도에서 사용하며 ‘멍치’를 오히려 ‘멍텅구리’라 한다.

④⑤⑥은 ‘우도’에서도 사용

제보자 : 김갑생 (어부, ?) 강복순 (해녀, 67세)

박경중 (男 · 56세) 이명자 (해녀, ?) 김진숙 (해녀, ?)

Ⅱ. 농산물명 (農産物名)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	보 리	보 리	쌀보리, 떡보리,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	감부기	검뱅이	
3	고구마	감 저	
4	감 자	지 슬	
5	조	조	호린조, 모인조, 붉은터럭조
6			정낭사리, 불갓시리
7	수 수	느렁대축	빻자류 원 단
8		대낭대축	
9	옥수수	강냉이	대축부랭이
10	무	놈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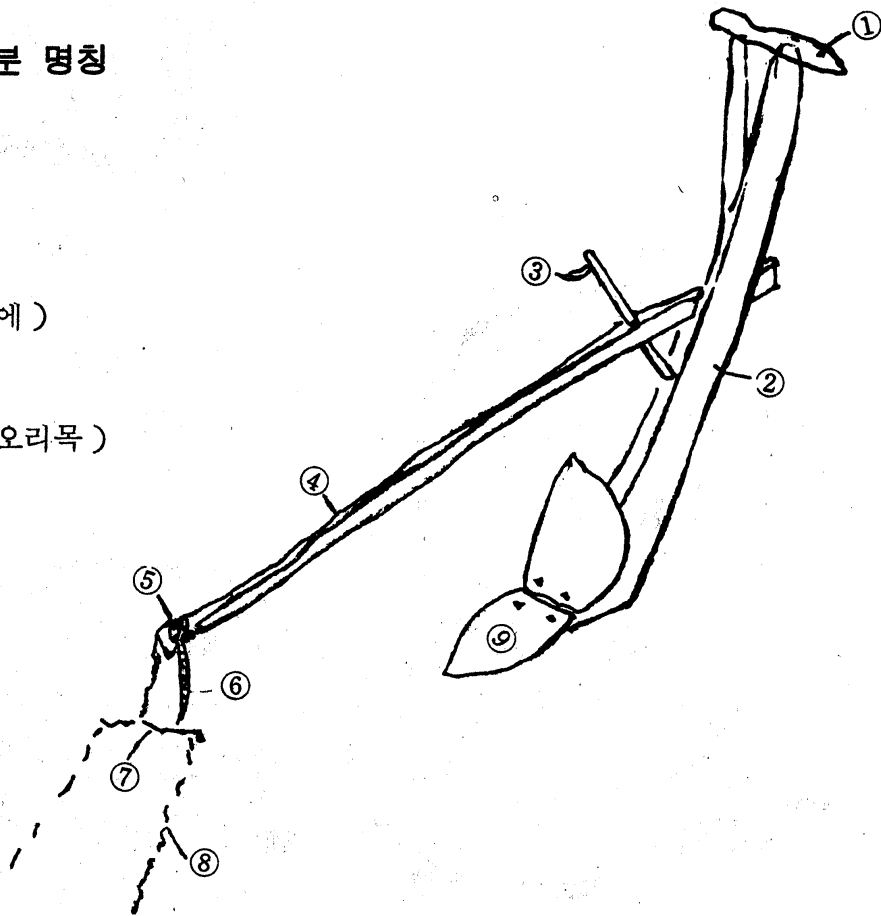
11	파	파	
12	가 지	가 지	
13	오 이	물 외	

제보자 : 박경중

Ⅲ. 농기구명(農機具名)

가. 쟁기부분 명칭

- ① 양젯머리
- ② 쟁기뿔
- ③ 설깃
- ④ 성애(성애)
- ⑤ 달팽이뿔
- ⑥ 오름목(오리목)
- ⑦ 고들개
- ⑧ 한줄
- ⑨ 보섭
- ⑩ 망울*
- ⑪ 좁개*
- ⑫ 멩애*



*쟁기부분 명칭이 아니고 쟁기와 함께 쓰이는 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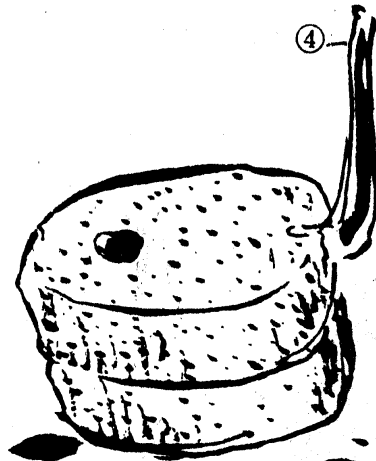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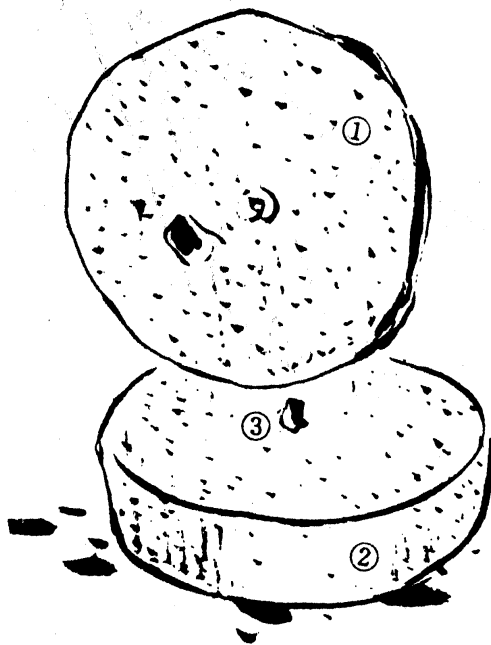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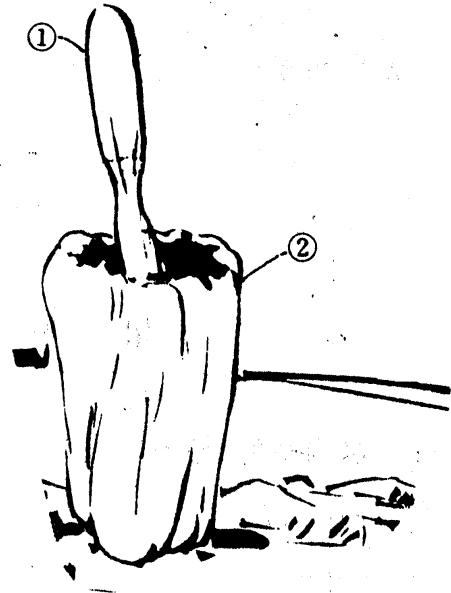
나. 방에 부분 명칭

- ① 방에
- ② 방엿돌 (방엿통)

다. 맷돌 부분 명칭

맷돌 (ㄴ래)

- ① 올착 (우착)
- ② 아래 착
- ③ ㄴ래쫑
- ④ ㄴ래트족룩



라. 기 타

번호	표 준 어	방 언	동 사 류 및 참 고 어 휘
1	써래	끄실래	
2	낫	호 미	
3	호미	꼴갱이	
4		따비	
5		목팽이	
6		팽 이	
7		쇠시랑	
8	부삽	갈래죽	
9		도리깨	도리깨아들
10			도리깨어시
11		ㄱ래방석	
12		소쿠리	
13		꼴 채	쇠꼴채, 대꼴채
14		채	얼채이

제보자 : 박경중 (男, 56세)

Ⅳ. 지 명 (地名)

가. -밭(왓, 팻)型

①장항피 (집 뒤에 있는 밭)

濟州島部落誌(Ⅳ)

- ② 거머스리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밭)
- ③ 당팓 (堂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④ 우영팓 (人家의 부근에 있는 밭)
- ⑤ 장구왓 (밭이 장구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밭)
- ⑥ 지픈밭 (주위의,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붙여진 밭)
- ⑦ 빌레송
- ⑧ 동방귀
- ⑨ 드르뭇
- ⑩ 비캐왓
- ⑪ 추녀니왓
- ⑫ 개죽은산전밭
- ⑬ 큰절산전밭
- ⑭ 곰망냉이집터왓
- ⑮ 고냉이밭머리왓 (고양이가 많이 죽어 붙여진 이름)

나. -물型

‘물’은 통, 뭇과 함께 인위적, 자연적인 샘물 등을 말한다.

- ① 장상물 (지금의 동하동과 서하동에 있는 물)
- ② 킨 물 (지금의 동상동에 있어 붙여진 이름)
- ③ 도하치물 (지금의 서상동에 있는 물)
- ④ 앞긴물
- ⑤ 골그미물
- ⑥ 웃산물
- ⑦ 장태물
- ⑧ 구신물
- ⑨ 우웨기물 (솟는물)

⑩ 땔망물 (땔이 많이 든다하여 붙여진 이름)

⑪ 검은물

⑫ 황물

다. -못型

① 섯대못

② 동대못

라. -동산型

① 하막동산 (봉화대를 설치했었다고 함)

② 붉은보릿동산

마. -여型

‘여’는 암초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밀물 때는 보이지 않으나 썰물 때는 보인다. 물 속에 있다 보이는 ‘여’는 ‘뜬여’라 한다.

① 섯가른여

② 측바른여

③ 막가른여

④ 소(쇠)여 (동복의 대표적인 ‘여’이다)

김상해씨의 말에 따르면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마을을 사람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밥상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제보자들은 단순히 바다에 근접한 집을 보존키 위해 파도를 막을 생각으로 ‘여’ 위에 돌을 쌓았다고도 한다.

바. -개型

‘개’는 작은 浦口, 배를 대는 곳이기도 하며 ‘땔’(땔치)이 들었을 때

濟州島部落誌(Ⅳ)

‘멜(멸치)을 가두어 주는 역할도 한다.

- ① 엉굴개
- ② 새개
- ③ 장산개(지셋개)
- ④ 킨물개(사오넝개)
- ⑤ 도화치개

V. 기 타

동북리는 4개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 동상동(웃골, 동카름)
- 서상동(섯골, 서카름)
- 동하동(안골, 안카름)
- 서하동(중골, 중카름)

그리고 ‘동북’이라는 이름은 ‘곰막’에서 유래된 것으로 ‘곰’은 김녕의 ‘ㄱ살미’에서 온 것이며 ‘막’은 ‘해막동산’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 ‘곰막’에서 ‘곰’은 작은 촌락, ‘막’은 경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지금은 ‘곰막’을 ‘꼴막’이라고도 부른다. 또 어떤 분은 동쪽에서 북이 온다하여 ‘동북’이라 붙였다고도 하며 동네의 별칭으로 인심이 좋다는 뜻으로 ‘생이다리’라고 부른다 한다.

제보자: 김상해(男, ?)

民 謠

指導教授：金榮敦

指導補助：梁永予 韓基興

班 員：安姬貞(4) 安敏希(4)

金京宣(3) 金愛蘭(3)

金炫廷(2) 任智衍(2)

吳賢珠(2) 高能修(2)

李美順(1) 李榮心(1)

洪美鏡(1)

目 次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II. 제보자

III. 노동요

IV. 의식요

V. 타령류

VI. 一 (1) 전승동요

(2) 놀이요

VII. 却 註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 동안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들이다.

조사된 민요와 동요들은 가급적 다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요의 사설표기는 될 수 있는 한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어 표기법시안>에 준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부른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의미 파악이 힘든 단어는 註를 달아 설명하였다.

I.

제 1 일 (8 월 1 일)

아침 10 시에 학교에서 소집하여 학교버스로 출발, 오전 11시경 숙소인 구좌읍 동북리 동북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집을 풀고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동북마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조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각 조사반이 조사에 들어갔다. 첫날 민요조사반은 점심과 저녁식사를 담당했으므로 한 차례의 조사 밖에 가질 수 없었다.

이장님의 소개로 만난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조사반은 저녁 9시 30분경에 김군오씨 댁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조사여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양옥녀(女·51), 양영수(女·71), 이경봉(女·76), 김은옥(女·59), 김대선(女·61), 양일생(女·81)씨 등 여러분을 모시고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서 〈ㄱ레ㄴ는 소리〉, 〈서우젓 소리〉, 〈뱃별리는 소리〉 등 다수의 노동요와 타령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 2 일 (8 월 2 일)

오전 10시 동북국민학교에서 김민정(女·11)을 비롯한 1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요를 채록하였다. 오후 3차 조사때는 이장님의 소개로 양금녀(女·48)씨를 동북국민학교에 모시고 〈달구소리〉, 〈꽃염불〉, 〈희심곡〉, 〈ㅁ쉬모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저녁 7시쯤 시작한 4차 조사때는 해녀 회장님댁에서 해녀 다섯분을 모시고 조사를 했으나, 해녀노래가 거의 들려지지 않아 해녀의 생애력(life-story)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제 3 일 (8 월 3 일)

오전 10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민요조사반은 두개의 조로 나누어서 제보자를 분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조는 발일 갔다 오시던 김완문(女·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68), 이자생(女·78)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이자생 할머니댁에서 노동요와 여러 종류의 전승 동요를 채록하였다. 또 할머니들이 직접 체험하신 4·3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다.

2 조는 김창용(男·50)씨를 만나보았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접한 남자 제보자이다. <창부타령>, <밧블리는 소리>, <따비질 소리>, <므쉬모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오후 6차 조사때는 1차 조사때 만난 이경봉(女·76)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찾아 보았다. 이 할머니께서는 <멩긴뫼는 소리>, <므쉬모는 소리>, <밧블리는 소리> 등 7 종류의 노동요와 농사관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남자 제보자인 김두일(男·78)씨를 찾아 <따비질 소리>, <밧블리는 소리> 등을 채록하였다. 저녁 7차 조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전체시간을 가졌으므로 4명의 조사자만 참석했다. 이때 제보자는 1차 조사때 만났던 양영수(女·71), 김은옥(女·59), 김대선(女·61)씨로 김은옥씨 댁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제보자들이 성의있게 조사에 임해주셔서 이 마을에서 불려지는 여성노동요 전반에 걸쳐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채록할 수 있었다.

제 4 일 (8 월 4 일)

오전 8차 조사에서는 녹음기 사정상 녹음이 안된 부분을 채록하기 위해 양금녀(女·48)씨를 학교에 모셨다. 이 조사에서는 타령류, <멩긴뫼는 소리>를 채록하였다. 타령류는 조사자들에게도 귀에 익은 것이어서 हु소리를 함께 부르는 어우러짐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제 5 일 (9 월 30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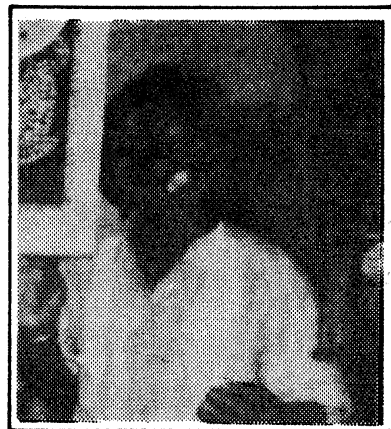
미진했던 점과 불확실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재조사를 했다. 이때 지난번 8차 조사까지 채록된 민요를 테이프에 선별 녹음해서 제보자들에게 선물로 드렸고, 불확실했던 사설의 뜻을 다시 확인했다.

Ⅱ. 제 보 자

[제보자 1]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무생 (男 · 72)



동북리 이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무생 (男 · 72) 씨는 마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분으로서 마을의 민요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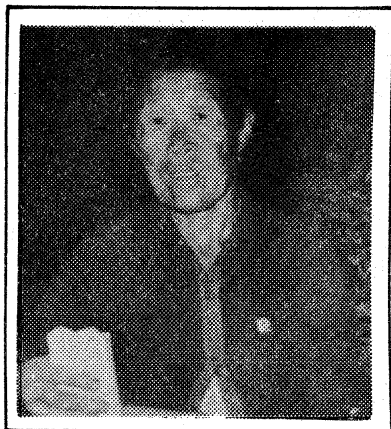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7~8세 때부터 허벅장단을 관심을 갖고 배웠고 7~8년간 국악협회의 결궁패에서 활동했는데 팽과리와 북을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 14세 때 일본에 건너가 대동아 전쟁을 겪고 해방이 되자 귀국해서 배를 타고 부산, 해남, 강진 등지로 장사를 나가기도 했다 한다. 할아버지는 오늘날에 우리 고유의 노래가 사라져감을 무척 안타까와하셨고 다른 제보자들이 노래할 때는 무릎을 치며 장단을 맞추거나 어깨춤을 추시는 등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노래를 청하자 노래는 못한다시며 그저 어깨춤만 덩실덩실 추실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양금녀 (女 · 48) 씨를 소개해 주시면서, 돌아가신 허행길씨가 <행상노래>를 그렇게 잘했다고 아쉬워 하셨다.

[제보자 2]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양영수(女·71)



양영수(女·71) 할머니는 김무생 할아버지가 주선하신 자리에서 처음으로 뵈 수 있었다. 1차 조사때는 노래를 잘 앳으려고 했으나, 조사자들이 8차 조사 때 마련한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피곤하실까봐 걱정하는 조사자들에게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밤을 새고 싶을 정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할머니는 구좌읍 덕천리에서 출생하여 동북리에 시집오셨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계시다. 물질은 못하시고 발농사를 하신다. 자녀는 모두 출가해 타지에 나가 있어 현재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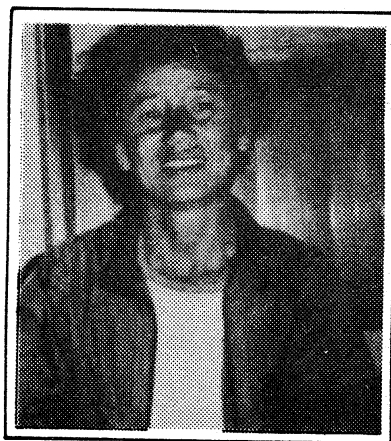
여성노동요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노래 하나를 불러도 끊임이 없이 완전하게 사설을 이으셨기 때문에 조사반이 많은 노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료: Ⅲ 2-1, Ⅲ 2-4, Ⅲ 3-1,
Ⅲ 3-3, Ⅲ 6-1, Ⅲ 7-1,
Ⅲ 7-2, Ⅲ 9-1, Ⅲ 9-2.

[제보자 3]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1494

양옥녀(女·51)



濟州島部落誌(Ⅳ)

양옥녀(女·51)씨는 구좌읍 김녕리에서 출생, 동북으로 시집왔고 양금녀(女·48)씨와는 자매사이이다. 21세때 구룡포로 건너가서 물질을 하였고 결혼후 3년간 관포, 장길리, 울릉도, 부산 등지에서 몇 개월씩 물질을 했다. 현재 협신친목계에 가입해 있고 29세때 전라도 근방에서 한 달 동안 난바르¹⁾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양옥녀씨는 김무생 할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노동요보다는 타령류를 많이 알고 계셨다. 간혹 노래를 하다 끊길 때도 있었고 타령을 하실 때는 어깨춤을 추시면서 매우 흥겹게 부르셨다.

제보자료 : Ⅲ 8, V 3-2, V 4-1, V 4-2, V 5

[제보자 4]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양금녀(女·48)



양금녀(女·48)씨는 양옥녀(女·51)씨의 동생으로 구좌읍 김녕리에서 출생하여 동북으로 시집왔다.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고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종달리 봉화사의 보살로 계시다.

국악협회에 가입하여 41세부터 외국공연을 위하여 3년 동안 노래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공연을 위해 배운것으로 제보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타령류였다. 특히 〈회심곡〉은 직접 자신이 지었다고 한다. 〈회심곡〉을 부르실 때에는 두 손을 합장하고 정성을 다해 노래 부르셨고 그 모습은 다른 사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또 조사자들이 녹음을 하려고 하면 녹음하기 전에 꼭 한 번 연습을 하는 등 성의를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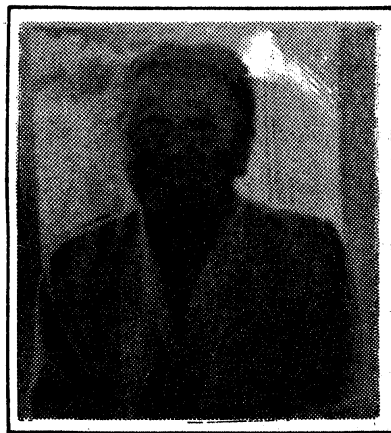
현재 신진친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에 땀이 났을 때는 신일병 씨와 번갈아 가며 〈행상노래〉를 하신다고 한다.

제보자료 : Ⅲ 2-2, Ⅲ 10-2, Ⅳ 1, Ⅳ 2, Ⅳ 3, Ⅴ 1, Ⅴ 2, Ⅴ 3-1, Ⅴ 6-1.

[제보자 5]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이경봉(女·76)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만난 이경봉(女·76) 할머니는 〈맹진씨는 소리〉를 자신있게 불러 주셨는데 수줍어하시면서도 조사에 잘 응해주셨다.

할머니는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하여 동북에 시집가셨다. 15세때 물질을 배워 30세까지 하셨다고 한다. 이경봉 할머니는 첫날의 2차 조사 때는 수줍어하시며 노래부르시길 꺼렸으나 6차 조사때는 친절하게 응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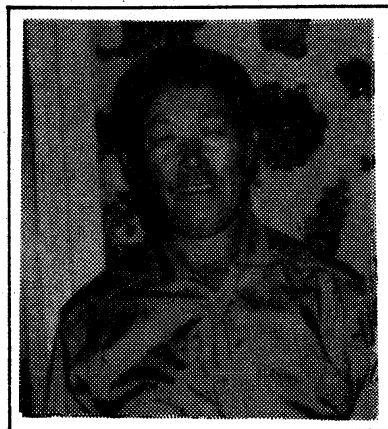
농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다가 조사자들이 〈밭갈리는 소리〉를 해 줄 것을 청하자 못하겠다고 잡아떼시다가 동네 할머니들과 조사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하시며 불러주셨다.

제보자료 : Ⅲ 6-4, Ⅲ 10-1, Ⅲ 10-3, Ⅵ-[1]1, Ⅵ-[1]5

[제보자 6]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창용 (男 · 50)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마을주민의 소개로 김창용 (男 · 50) 씨를 찾았다. 이 분은 김두일 (男, 78) 씨와 더불어 마을에서는 찾기 힘든 남자 제보자 중의 한 분이다. 가장 자신있게 부르는 노래가 〈창부타령〉으로,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르시고 나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셨다. 그러나 조사자들이 마련하고 간 술을 권하면서 해주실 것을 청하자 〈밧블리는 소리〉, 〈므쉬모는 소리〉, 〈따비질 소리〉 등을 흥겹게 불러주셨다. 노래부르는 사이사이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술 한잔에 시 한 수 떠나가는 김창용이”하면서 여유를 보이기도 하셨다. 현재 동하동 조합장직을 맡고 계시다.

제보자료 : Ⅲ 1, Ⅲ 2 - 3, Ⅲ 5, V 7

[제보자 7]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이자생 (女 · 78)



이자생 (女 · 78) 할머니는 조사자들이 6차 조사를 위해 제보자를 찾던 중 우연히 만난 제보자이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할머니는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하셨고 17세때 같은 마을에 시집오셨다. 할머니께서 37세 되던 해에 4·3사건이 일어나 남편과 자식(1男1女)을 한꺼번에 잃으셨는데, 한 때는 남편이 죽은 것이 믿기지 않아 남편을 찾기 위해 일본까지 갔다 오셨다고 한다. 현재는 양녀로 키운 딸이 부산에 출가해 있다. 밭일과 물질을 겸했었는데 이젠 밭일만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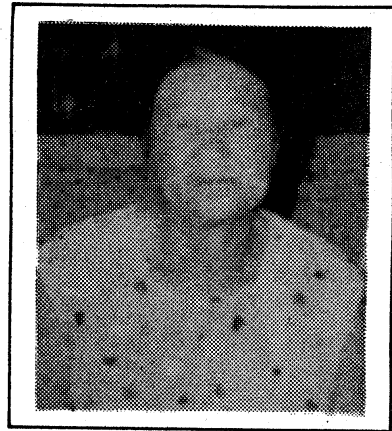
할머니께선 조사에 열심히 응해주셨고 직접 체험하신 4·3사건도 얘기해주셨다. 얘기하시는 중간중간, 벽에 걸려 있는 남편의 사진에 오랫동안 시선을 멈추곤 하셨고 조사가 끝났을 때는 조사원들에게 다시 한번 와 줄 것을 몇 번이나 부탁하셨다. 5차 조사는 그 어느 때의 조사보다도 진지하고 흥겨운 분위기였다.

제보자료 : Ⅲ 3-2, Ⅲ 4, Ⅲ 6-2, Ⅲ 9-3, Ⅲ 11-1, Ⅲ 11-2,
V 8, VI-[1] 9.

[제보자 8]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완문(女·68)



김완문(女·68) 할머니는 이자생(女·78) 할머니와 함께 우연히 만난 제보자이다.

할머니는 구좌읍 송당리 출생이시고 조천면 눈막에 시집가셨다가 59세 때 다시 구좌읍 동북리에 재출가하셨다. 현재 구좌읍 동북리 이장님의 모친으로, 슬하에 1男2女를 두고 계신다.

할머니께선 몹시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계셨고 조사 중간중간 우스개 소리를 곧잘 하셨고 전승동요를 많이 알고 계셨다.

濟州島部落誌(Ⅳ)

제보자료 : Ⅲ 12, V 9, VI-[1] 2, VI-[1] 3, VI-[1] 4,
VI-[1] 6, VI-[1] 7, VI-[1] 8.

[제보자 9]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1411

김은옥(女·59)



김무생 할아버지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진 2차 조사때 만난 김은옥(女·59)씨는 몹시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해서 동북리에 출가했으며 슬하에 3男3女の 자녀를 두고 있다. 물질은 13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 33세에 거제도에서 1년간 작업한 일이 있다. 조사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흔쾌히 응해주셨다. 이분은 김대선(女·61)씨와 함께 양영수(女·71)할머니의 선소리에 이어 주로 훗소리만을 담당했는데 특히 분위기를 흥겹게 이끌어 주셨다. 2차 조사 때는 제보자들이 노래할 때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셨다. 또 구연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가셨다. 김은옥씨는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술잎 굽는 소리>를 불러 주셨다.

제보자료 : Ⅲ 13.

Ⅲ. 노 동 요

1. 따비질소리

허공산에 남따비야 땅에나 들라 두저~

[예구, 더움은 무사 영 더우니, 참. 무슨 팔자 나 낭 영 남따비질 허렌양,
우리나 어명은 어느 때 나 날때 메역국도 먹영 나실거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허공산에 남파비아 땅에나 들라~

[에이, 그 나폴래미거 잘 넘어간다. 태역병탱이도.]

(김창용, 男 · 50)

2. 밧불리는 소리

2-1.

A. 어어~ 어러러~ 어어~얼월

월월 여려오오~ 월월하라

B. 월월 어러러~ 어러러~

A. 어라 어어~ 월월하라

B. 월어러러~ 월월

A. ²⁾이수장먹던 요물덜아

월월소리에 모여들라

어러러~ 아아월월하라

B. 월월 워러러~

A. 오닐 ㅎ를 걸어그네

일년열두들 삼백육십오일 먹고살을 군량이여

월허얼

B. 월어러러~

A. 동녁전에 ³⁾코알렁물 ㄱ튼

저물강 막아오라

어러러~어~ 월월하러

B. 월어러러~

A. 청산백호 여수항구내에

문광유수가 되었으니

濟州島部落誌(Ⅳ)

어하어월하월

B. 월월 어려려~

A. 월월소리가 노피난다

어려~어 어려~오

어려려~ 월월하려

B. 월월어려려~

A. 아니놀앙 무엇하랴

월허~얼 월월위얼

A : (양영수, 女 · 71)

2-2.

월월 월월월 이러러려~ 월러럴~러

요몰덜아 혼저혼저걸라

오뉴월더운데 혼저혼저걸엉

밧도나 혼저불리게

월월 월월월

월월 월월월 어러러려~ 월러럴~러

이수장에서 놀던몰덜아

저수장에나왕 물도나먹곡

출도나먹곡 허는구나

월월 월월월월 월월럴럴

산천초목 젊어나지고

요내 서방님은

소록소록 늙어나간다.

월월월월 [히히히히히힝!] 워러러려~

간다간다 되돌아간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월월 월월월 어러러러~월월 [허허허허형]

속님속님마다 꽃도나피고

올때도 열고

우리인생은호번가면 다시못오는구나

월월 워러러러~ 월월 월월월러

(양금녀, 女 · 48)

2-3.

어려어어~어려러~요물들아

제발자국 제자국에 풀풀볼라 혼저 밧디랑 머리에 나가게 어어어
어려어~ 월월

동북산전에 먹든 요물덜아

어려러 월월 어어려려려려

[와~, 저놈의 물 참 저거 호나가 말안들엄서 매치젠 햄저이.]

어려러 월월월월

[이거 동넛님 물 잘 몹서, 센역더레]

제발자국 제자국에 잘 돌아가는구나

어어~

어어어 월월

[에, 조두걸림 조 잘 여물키여, 땡땡 불라노난.]

(김창용, 男 · 50)

2-4.

A. 월월~ 월러러~ 월월~ 월월~

월월~ 어러러 어허어어~ 에헤에야

B. 월월~ 월월~

濟州島部落誌(Ⅳ)

- A. 월월~헛민 돌아나온다.
 월월 월털털 월월~ 월월하야
 월월 헛민 돌아나온다.
 에헤에에 헤에헤야
 월월~ 월월~
- B. 월월~ 월월~
 워러러 월월~
- A. 에리더나 허어이
 어허이 월월
- B. 월월~ 월월~
- A. 이물덜아 혼저글라
 오늘헛를 걸으민
 일년열두들 삼백육십오일
 우워~ 먹고살거로다
 어형어 월월
- B. 월월~ 월월~
- A. 청산백호 여수항구내에
 물광유수가 되었으니
- B. 월월 월월워러월월
 월월~ 월월~
- A. 아니노지는 못느리다.
 어허~홍 월월허~
- B. 월월~ 월워러러월
- A. 이산저산 양산중에 에야홍
 울고안자 곡상애로다
 월월 월월하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B. 월월~ 월러러월월
 A. 요 밧데 조랑불리건 어허
 나무랑 구리때되곡
 무췌 ㄹ름 쫄 ㄹ름어허흥
 B. 월월~ 월월워러러월월
 A. 월월~ (와와) 워러러월월
 B. 월월~ 월월~
 A. 월월소리에 노피나난다
 어허야월월 어허월월
 먼디사름 듣기나조케
 B. 월월~ 월월~
 A. 월월 월허려려
 에헤에야 어허월월
 월월허민 돌아나난다
 B. 월월~ 월월~
 A. 월월 월허려려
 월월월~
 B. 저몰막으라 저몰막으라
 A. 월월~ 월월~

A : (양영수 女 · 71)

B : (김은옥 女 · 59)

(김대선 女 · 61)

3. 검질매는 소리

3-1.

- | | |
|-----------------------|--------------------|
| A. 에앵어야 | 디야로다 |
| B. 앵헤에야 | 디야로다 |
| A. 앞멍에랑 | 들어나오라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뒷멍에랑 | 나고나가라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소리라근 | 느직느직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검질손은 | 즌직즌직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띄미꽃인 ⁴⁾ | 뽕남도좋아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니여내영 | 상대선지성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니여내영 | 중대선지성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이물에랑 | 이사공아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고물에는 | 고사공아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허릿대밑에 | 화정눔아 ⁵⁾ |
| B. 에헤에야 | 디야로다 |
| A. 망만부튼 | 털벌립에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잣만부튼 | 헌오장에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깡만부튼 | 헌초신에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잣만부튼 | 남조대에 ⁶⁾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북만덩덩 | 치영깨라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진도바당 | 골로간다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우리배는 | 잼도재다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춤매새끼 | 늑는듯이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늑의배는 | 뜸도뜨다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서물아래 | 굴멩이기듯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우리배가 | 가는되랑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메역좋은 | 웅덩게로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늑의배가 | 가는되랑 |
| B. 에헤에야 | 디아로다 |
| A. 관태좋은 | 관텃골로 |

濟州島部落誌(Ⅳ)

- B. 에헤에야 디야로다
 A : (양영수 女 · 78)
 B : (김은옥 女 · 59) 外 4명

3 - 2.

- A. 검질깃꼭 굴너른밧디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앞명에야 어서오라
 뒷명에랑 물리나사라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혼저가민 앞명에가카
 검질을매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누가잘매고 누가못매면
 어서앞명으로 빨리가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우리인간 어서매영
 앞명으로 가자혼다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혼소리두쭈반씩 매어나보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즈직즈직 노래부르명
 요검질을 버칠소나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앞명에랑 뒤로나오라
 뒷명에랑 나아가자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나놀래랑 놀고나가자

나놀래랑 자고나가자

B.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A. 놀아질땐 놀아보자

늪어나지면 못노리라

A : (이자생 女 · 78)

B : (김완문 女 · 68)

3 - 3.

A. 앵헤야 디야로다

B. 앵헤야 디야로다

A. 검질깃꼭 굴너른밧디

B. 앵헤야 디야로다

A. 사데로는 우기명가자.

B. 앵헤야 디야로다

A. 소리라근 느직느직

B. 앵헤야 디야로다

A. 검질손은 즈직즈직

B. 앵헤야 디야로다

A. 혼소리에 두쭈반씩

B. 앵헤야 디야로다

A. 혼소리에 석쭈반씩

B. 앵헤야 디야로다

A. 어서땡강 앞명에가자

B. 앵헤야 디야로다

濟州島部落誌(Ⅳ)

- | | |
|-----------|---------|
| A. 요걸일이엔 | 허지를마라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허다남은 | 일리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스무나몬 | 설나몬적엔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입산남도 〃 | 휘어돈내야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어제청춘 | 오늘백발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청춘이 | 갈줄을알았다면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청사홍사로 | 절박허컬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백발이 | 오실줄알았다면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십리밖에 | 성이나싸컬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돌아와요 | 내청춘아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어기야디야 | 산리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산이노파 | 못오시면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차를타고 | 돌아와요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A. 물이지퍼 | 못 오시면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배를타고 | 돌아와요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품미불렁 ⁸⁾ | 흔시름쉬곡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사데 불렁 | 흔시름세곡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시름이나 | 쉬영가자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어기야디여 | 산이로구나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한ㄷ산상상봉 | 외로난소남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누구를믿고 | 저리안자잇노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밤이나낮이나 | 임 ㄹ치안장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처 럼허게도 | 안저있네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석상우에 | 나시던매화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일로다가 | 옥중에심건 ⁹⁾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 A. 아침저녁 | 물주명키완 |
| B. 앵헤야 | 디야로다 |

濟州島部落誌(Ⅳ)

- | | |
|----------|----------------------|
| A. 제몐이성 | 이성당호난 ¹⁰⁾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날인줄을 | 모르는구나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어기농창 | 방애로다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요방에가 | 웬 방애나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강태공이 | 조자게 방애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요방에론 | 혹어신 방애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혹을돌랑 | 지어나보자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가시오름 | 강당장칩이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세 쵸방애 | 새글림서라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전생구진 | 이몐이가난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다섯 쵸도 | 새 맞아온다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ㄱ랑쥬쵸 | 늑어시떡엉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 A. 늑의어멍 | 말어시산다 |
| B. 앵헤야 | 디아로다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A. 어기야디아 산이로구나

B. 앵헤야 디야로다

A. (양영수 女 · 71)

B. (김은옥 女 · 59)

(김대선 女 · 61)

4. 마당질 소리

A. 어기야 흥

B. 어기야 흥

A. 에야도 하야

B. 어야도 하야

A. 어는제 랑

B. 어는제 랑

A. 요앞은 누게앗고

B. 요앞은 누게앗고

A. 설룬정네

B. 설룬정네

A. 앞이로구나

B. 앞이로구나

A. 에야도 하야

B. 어야도 하야

A. 믱를믱를

B. 믱를믱를

A. 음나믱를

B. 음나믱를

濟州島部落誌(Ⅳ)

A. 물룩물룩

B. 물룩물룩

A. 매어나노라

B. 매어나노라

A. 에야도하야

B. 에야도하야

A. 어기야 흥

B. 어기야 흥

A. 흥믈랑 쉬고가자

B. 흥믈랑 쉬고가자

A. 에야도 하야

B. 에야 흥

A. 어기야 흥

B. 어기야 흥

A. 흥아믈 믈믈믈

B. 믈믈믈

A. 흥믈랑

B. 흥믈랑

A. 놀고나가자

B. 놀고나가자

A. 흥믈랑

B. 흥믈랑

A. 쉬고나가자

B. 쉬고나가자

A. 매여노라

B. 매여노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A. 두드려노라
- B. 두디려노라
- A. 에야도 하야
- B. 에야도 하야
- A. 조코고리 그차나지라
- B. 그차나지라
- A. 훈도막에
- B. 훈도막에
- A. 모사나지라
- B. 모사나지라
- A. 믱를믱를
- B. 믱를믱를
- A. 매여나놓자
- B. 매여나놓자
- A. 에야도 하야
- B. 에야도 하야
- A. 어가 흥
- B. 어가 흥
- A. 에야도 하야도
- B. 에야도 하야도
- A. 훈 믱를랑
- B. 훈 믱를랑
- A. 누게앗곡
- B. 누게앗곡
- A. 설룬정네
- B. 설룬정네

濟州島部落誌(Ⅳ)

A. 앞이로고나

B. 앞이로고나

A. 내앞으로 두디령가자

B. 내앞으로 두디령가자

A. 어요 하야

B. 어요 하야

A. 어가 흥

B. 어가 흥

A : (이자생 女・78)

B : (김완문 女・68)

5. ㅁ쉬모는 소리

어려려어어어 어려려어 어려려려려어어 어허어려어 어려려려

[어, 저 물 보라 만날 저놈의 물은 그자 배식배식, 저거 또 혼 대
맞아야키여 요녀리 몽둥이로. 와, 와, 와! 저 물 또 어디레 감시 저거,
와!]

어려 어려려려어어어 어려려

[저 놈의 물 자꾸 보리발 엠더레만 냄새맡청, 어! 매쳐!]

어어어어 어려려려 어허허허 어려.

(김창용 男・50)

6. ㄹ레ㄹ는 소리

6-1

A. 이여이여 이여도헛라

B. 이여이여 이여도헛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A. 날이엇언 | 구월이라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들이엇언 | 구월이라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전생구즌 | 구월에나난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구엿꽃이 ¹¹⁾ | 벗이로구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전생팔즌 | 긋어랜이몸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만종고절에 | 불싸레가난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심지엇인 | 옥동엿불이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동사방에 | 훤허엇고나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삼당중당 | 벨중당놓안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짓언보난 | 우념당이여 ¹²⁾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늬이운덜 | 나울렌헌게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울언보난 | 선목이러라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濟州島部落誌(Ⅳ)

- | | |
|------------------------|--------|
| A. 씨누이야 | 씨가령말라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느도가민 | 씨녀의간다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나도가문 | 어명광아방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A. 백년동계 ¹³⁾ | 매맞아본다. |
| B. 이여이여 | 이여도하라 |
- (양영수, 女 · 71)

6-2.

- A. ㄹ레 ㄹ레 요 ㄹ레야 지난허곡 곱곶현 요 ㄹ레야
어서나 쏴아브라 이여이여도허라
- B. 이여이여 이여도 ㄹ레
- A. ㄹ레도 배연 언제민 다 쏴아지코
이여도 ㄹ레야 어~
- B. 이여이여 이여도 ㄹ레
- A. 배연 언제나 요 ㄹ레도 배영 쏴아지코 이여도 ㄹ레야 어어~
지난허고 지난헌 ㄹ레로구나 이여
- B. 이여이여 이여도 ㄹ레
- A. ㄹ레소리도 청이서사 좋을진디 연연하구나
내청이 어선 아니되켜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 B. 이여이여 이여도 ㄹ레
- A. ㄹ레도 영도배민 어떻 이기영 쏴아지코
이여도 ㄹ레
- B. 이여이여 저녁이나 붉은때 허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본디 어둡는집에 오닐이엿 붉은때허라

A. 간들간들 폴아도 버천에 다 못ㄴ는구나

어어~ 이여도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도ㄴ레

A. ㄴ레도 버천에 지난허고 지난헌다

이여도ㄴ레야

A : (이자생 女 · 78)

B : (김완문 女 · 68)

6 - 3.

A.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길ㄴ집에 도실낭심건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씨냐드냐 맞불인셔도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지녕살인 하나이어서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A. 질ㄴ집의 정ㄴ레소리

B. 남당췌기떡 훈착반앙

종달리 갔다오는 발뽕이 나고

나 죽어진들 이여도허라

A. 산에가민 설장기소리

B.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濟州島部落誌(Ⅳ)

- A. 집인들민 씨어멍소리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A. 귀에쟁쟁 열리어서라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B.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어기야디아 ㄱ레로구나

A : (양일생 女 · 81)

B : (이경봉 女 · 76)

6-4.

- A. 이여어어 이여어어~ 이여도하라
 B. 이여어어~ 이여 이여어어~도하라
 이여어어~도하라
 A. 이여어어~ 이여어 이여어어~도
 ㄱ레가 돌아나오라
 이여어어~도하라 이여어어~도하라
 B. 이여어어~ 이여어어~ 이여어도하라
 A. ㅎ를밤인 밀닷말쫄안
 품샷을 주는건보난
 남당췌기떡¹⁴⁾ 식개받아다가
 시아버님 ㅎ나드리고
 시어머님 ㅎ나드리고
 ㅎ착하나는 또끼벌렁
 님 ㅎ착내 ㅎ착 먹으니
 맛도나췌드라 이여도하라

A : (이경봉 女 · 76)

B : (양일생 女 · 81)

7. 방에짚는 소리

7-1.

이연이여	이여도 방에
이연이여	이여도 허라
꺾랑좁쌀	늑어시먹엉
늑의어멍	말어시산다
이연이여	이여도 허라
지서명광	오름엿들은
등글다도	살을메 난다
늑의첩광	소낭엿 브름
소린나도	살을메엿나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전생 구진	이몸이가난
대여키도	새맞아온다
이연이여	이여도 허라
설룬정네	들어나보라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연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방애	고들배지엉
저녁인들	붉은제허라
조반도사	늦어란집의
저녁인들	붉은제허라
이연이여	이여도 허라

濟州島部落誌(Ⅳ)

요방애가
강태 공의
요방애는
혹을돌라
이연이여
어린애기
어린남군
흔저저녁
이연이여

웬방애나
조자기방애
혹어신방애
짙어나보자
이여도하라
젓주어두고
좀재와두영
해여사허컬
이여도하라

(양영수, 女 · 71)

7-2.

A.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쫄방애
새글러서라
전썩구진
이몸은가난
대여키도

B.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세쫄방애
새글러서라
전썩구진
이몸은가난
대여키도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A. 새맞아온다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ㄱ랑줍썰

늑어시먹멍

눔의어멍

말어시산다

다심어멍

개년의똥년

검은공치¹⁵⁾

개주어두멍

훤공즈로

날바래더라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떻헛데강

아고야야

말도말라

B. 새맞아온다

상사감도

다살앗구나

하사감도

다살앗구나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ㄱ랑줍썰

늑어시먹멍

눔의어멍

말어시산다

다심어멍

개년의똥년

검은공치

개주어두멍

훤공즈로

날바래더라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떻헛데강

아고야야

말도말라

濟州島部落誌(Ⅳ)

A. 암퇘 ㄱ뚝

씨어멍에

장독 ㄱ뚝

씨아방에

몽게발 ㄱ뚝

서방님에

모질이닭은

씨누이에

시집살이

살젠형게

행기치메

다젓어져도

대한질이

눈물이러라

고초당초가

매웁다흔들

시집오랑

더매와서라

헛밤인

밀닷말 쏘앙

주억상웨

다섯이러라

시아바님

둘디려두곡

씨어멍네

둘디려두곡

B. 암퇘 ㄱ뚝

씨어멍에

장독 ㄱ뚝

씨아방에

몽게발 ㄱ뚝

서방님에

모질이닭은

씨누이에

시집살이

살젠형게

행기치메

다젓어져도

대한질이

눈물이러라

고초당초가

매웁다흔들

시집오랑

더매와서라

헛밤인

밀닷말 쏘앙

주억상웨

다섯이러라

시아바님

둘디려두곡

씨어멍네

둘디려두곡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A. 임광나는 | B. 임광나는 |
| 흔착이더라 | 흔착이더라 |
| 이여이여 | 이여이여 |
| 이여도하라 | 이여도하라 |
| A. (양영수 女 · 71) | |
| B. (김은옥 女 · 59) | |
| (김대선 女 · 61) | |

8. 물질 소리

- | | |
|--------|--------|
| A. 이여싸 | B. 이여싸 |
| 이여라차나 | 이여라차나 |
| 저바당에 | 이여차 |
| 은과금을 | 이여차 |
| 걸렸건만 | 이여차 |
| 높은낭에 | 이여차 |
| 올매나같이 | 이여라차라 |
| 보아도 | 이여차 |
| 못먹는 | 이여도싸 |
| 네로구나 | 이여나차라 |
| 쳐라쳐라 | 쳐라쳐라 |
| 어서나가자 | 이여도싸 |
| 동세에가자 | 이여도사나 |
| 섯세에가자 | 이여싸 |
| 썰물에는 | 이여도싸 |
| 동해바당 | 이여도싸 |

濟州島部落誌(Ⅳ)

A. 들물에는

서해 바당

어서속히

차고가자

이여라차나

요돈을

언제 나면

많이나벌영

남과같이

살아나보심

이여라차라

쳐라쳐라

어기야쳐라

메역조물레

가젠 흥민

동세 혼물

셋세 두물

어서속히

가나보세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나어멍

날날적에

무슨날에

나를놓고

바다종사

B. 이여도싸

이여차

어기야디야

이여라차라

이여라차나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어여싸

이여싸

이여라차나

쳐라쳐라

어여라차나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

어야디야

이여도싸

이여도싸

어여디야

이여도차

이여도싸

이여도싸

이여싸

이여도싸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A. 허게나 | B. 이여도싸 |
| 낑는고 | 이여도싸 |
| 이여라차나 | 이여도차나 |
| 이여라차나 | 이여도싸 |
| 이십스물 | 이여싸 |
| 설라문에 | 잘돌아간다 |
| 요내착을 | 이여차 |
| 남을주라 | 남을주라 |
| 이여도싸나 | 이여나차라 |
| 쳐라쳐라 | 쳐라쳐라 |

[아이고 메역 조물게 /]

A : (양옥녀 女 · 51)

B : (김은옥 女 · 59) 外 4 명

9 . 흥애기 소리

9 - 1 .

- A. 에야디야 어~ 흥애로다어어~
 흥애산이 불이로구나
- B. 에야아아~ 에야어
 어이오오 어기여어어영 어야어어야디야
- A. 어조리비조리에 한탈남밧
 서천은 징게드리어
- B. 어기야어어~ 어어~어기도오야
 어기농창어 흥애로다어어~

濟州島部落誌(Ⅳ)

홍애 산이 불이로구나

A. 어여어어~어기야어어 홍애로구나

이 산저산 양산중에

울고앓아 곡산이로다

B. 이여어어~ 어어~기야 어어~구나

A. 어젯 날은 청춘이요

오닐 날은 백발이 된다.

B. 구신의 차사소리도

곡이거꺼 가는구나

어어~어어~어기야아아구나

A. 청춘이갈줄을 알았다면

청사홍사로 절박착성허여두컬

B. 이야홍소리가 넘어가구나

아아에에 어어~홍애야

A. 백발이오실줄을 알았다면

십리밖에 가시성을쌓아두컬

B. 어느동안 백발이 된다.

백발이 되는구나

A. 일월 7튼 성공님네

어서댕강 놀고가세

A : (양영수 女 · 71)

B : (양일생 女 · 81)

9 - 2.

어기여디여허

홍애로당어어~

홍애 산이

불이로구나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광주월산	줄불낫네어이허어
계명산천	다붙어진다
어조리	비조리에어
한탈남밭서천은	징게도리어
아즌백이	신들리가
들어탕천	느려진다
일월 2 뜰	성공님네
어서댕강	놀고나가세
칠팔월	하늬 브름은
어디갓당	돌아나오려
어기여디여어	홍애로당어어
홍애산에	불이로구나
날만못논	정네도살고
날만못논	시네도산데
어떤즈넨	만복을재경
어멍아방	흔 반에논다 ¹⁶⁾
어강칭칭어허	관원장은
흔곡내곡	놀고나가네
흔 ㅁ를랑	놀고가고
흔 ㅁ를랑	쉬고나가자
해다지고	점근날에
폴목폴목	연기가난다
어기야디여어	산이로다어어어어
어기영	허어어랑
산의조종은어	한 ㄹ영산
물의조종은	황해수라

濟州島部落誌(Ⅳ)

어기야디여어	홍애로다어어~
홍애산에	불이로구나
요런날에	요런일허게
성도언만 ¹⁷⁾	가시영가렌
에기농창어	사테로다어어~
사테소릴	두고가자

(양영수, 女 · 71)

9 - 3.

홍애기야 언제민 / 이출을 다베코
선소리로 홍애기로 / 넘어가자
홍애기야 홍애기야
언제민 스랑에 버친
우리 하늬브롬이 돌아오코
한서방이 하늬브롬이로구나
홍애기야 홍애기야 / 하늬브롬 한서방아
어서나 스랑스랑 / 불어온다
어기야차차
소리로나 요늬의 출을
이기영가카 어어~
어기여차 하늬브롬아
어딴를 요청춘을 다보내던고
어기야차차 잘논다
홍애기야 하늬브롬 홍애기야
어디나가고 철철이 돌아온다
어기야차나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하늬하늬 스랑스랑

하늬브롬이 돌아온다

(이자생 女 · 78)

10. 멧긴뫼는 소리

10-1.

이년이년

이년멧긴

흔코두코

삼백예순코

어서못앙

어서육장보자

이년이년

이녀도하라

요녀리

시집을

살젠허니

이년이년

고치보단도

더매웁다이년이년

아이고시누이는

촉새 ㄱ치

이레착

저레착

어찌요렇게

요시집을 살코이년이년

뭉게발닭은

서방에

우럭닭은

씨아방에

덕우이아자도

씨어멍타령에

어서

말을몰라

삼년을

살고보니

[친정더레 서방이 도라가부는 거우다. 말 모르는 거메 도라가불
켄.]

핑은

파트등이 ㄴ난

아이고 이핑저핑

조진핑

濟州島部落誌(Ⅳ)

가심씩는	가심술랑
서방님	주고
우르륵우르륵허는	머리빡이랑
시아버님	주곡
박박끓는	발랑
시아머님	주곡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떻헛데강
아이고서룬동생아	말도말라
고치보다도	더매웁고
못살키여	

(이경봉, 女・78)

10-2.

A. 혼돌육장	시백인망근
돌막돌막	못아나지라
B. 이년이년	이녀도헛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떻헛데가
B. 이년이년	이녀도헛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궂도말곡	이르도말라
시아는딸은	못살커라라
B. 이년이년	이녀도헛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 | |
|-----------|---------|
| A. 고추당추 | 매 읍덴 혼덜 |
| 시집살이보다 | 더매울소냐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양지박박 | 얼근눔아 |
| 밥상받앙 | 앗지말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느네각시 | 애기엿영 |
| 한질더레 | 둘암서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어느만큼 | 둘암십테가 |
| 감테동산 | 둘암서라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긴 | 못아나지라 |
| A. 장독 ㄱ뜰 | 씨아바님에 |
| 암 톱 ㄱ뜰 | 씨어평에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근 | 못아나지라 |
| A. 코생이 ㄱ뜰 | 씨누이에 |
| 우럭 ㄱ뜰 | 씨아지방에 |
| B. 이년이년 | 이녀도하라 |
| 이년망근 | 못아나지라 |
| A. 물꾸럭 ㄱ뜰 | 서방님에 |
| 나뭇살키여 | 나뭇살키여 |

濟州島部落誌(N)

B. 이년이년	이녀도하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한산모시	열두씩치마
시집갈때	해여나준거
B. 이년이년	이녀도하라
이년망근	못아나지라
A. 살렛발에	걸어둡서
오명가명	눈물썰어
B. 이년이년	이녀도하라
이년망긴	못아나지라
A. 오명가명	눈물썰어
다~	씩어감서라
B. 이년이년	이녀도하라
이년망긴	못아나지라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10-3.

이년이녀	이녀이녀
호코두코	8멧긴코시정을
삼백예순두코	언제 멧장
호달육장불것고	이녀이녀
이멧긴 멧장	풀아야
좁쌀호말에	닷냥씩허는거
반앙먹을거로구나	

(이경봉 女 · 78)

11 . 시집살이 노래

11 - 1.

성님성님	스춘성님
성님은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암 툇 ㄴ 뜰	시어멍에
장 툇 ㄴ 뜰	시아방에
몽게 ㄴ 뜰	서 방님에
모질이 ㄴ 뜰	시누이에
살젠허난	낭패가되고
눈물이	흠물되고
흠물눈물	쌀당보난
서방은	보난
몽게 ㄴ 찌	엇굽젠 만허고
시누이	테는
벼룩이	닷되고
이가	닷되허엿저

(이자생 女 · 78)

11 - 2.

성님성님	시집살이가 어쩔데가
스춘성님은	살기가불행해연
고생을	해여도
난	아무리라도
암 툇 ㄴ 뜰	시어멍에

濟州島部落誌(Ⅳ)

장독 ㄹ 뜯	시아방에
살젠허난	고생이되언
지서명광	오름엿돌은
등글당도	살을메나고
눔의첩은	소낭윗 ㅼ름으로
부림만해영	ㅼ름맞추네

(이자생 女 · 78)

12. 불미소리

푸닥딱	푸닥딱
푸르락	똑딱
울지말라	이불미해영강
떡사주마	
고운떡을	먹을티야
진떡을	먹을티야

(김완문 女 · 68)

13. 술입굶으는 소리

술입아 재기재기 굶어나지라
혼저 보달청 집의 가그네 점심먹영
오늘 열 보달¹⁸⁾ 견영가사
내일 다른 일 헐 거 아니가
물에 들곡 검질매곡 헐 거 아니가

(김은옥, 女 · 59)

IV. 의 식 요

1. 꽃염불

A.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못오는 인생이로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인생살이 허무하구나

우리인생이 허무하구나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한번가면 못오는세상

인생살이가 허무하다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오늘살다 낼가시던날

깨던밥도 다놓아두고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A. 존입성도 필요가없고

좋은집도야 허스가되고

濟州島部落誌(Ⅳ)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열령가자 열려나주자
 영신영가를 열려나주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어머님아 아버지님아
 불쌍하신 어머님아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이세상을 하직을허고
 저세상으로 가는길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고생하신 원한을풀고
 살아실적에 못다쓰고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영혼영신 영가께서
 팔만스천 두간지옥을열려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열려열려 열려나가자
 저승사자님에 열려나주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A. 저성황천 가시드래도
아픈가슴을 다열립서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어머니가 저를낳아줄적
고생도나 많이하시교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불쌍하신 영혼영신
가련하신 영신영가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영혼영신 고생 한예를
저가저가 잘압니다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 A. 가슴에다 피묻은것을
설설설설 헤쳐갑서
- B. 어허~어야 어허~어야 어허야
니나노난실로 염불이로다.

(양금녀, 女 · 48)

2. 늦은 염불

- A. 어허야 어허~어야
니나노난실로 내가돌아간다

濟州島部落誌(Ⅳ)

- | | |
|----------|--------|
| B. 에헤~헤야 | 어허~어야 |
| 니나노난실로 | 내가돌아간다 |
| A. 청춘이라 | 가지나말고 |
| 늪지털이나 | 말아나주소 |
| B. 에헤~헤야 | 어허~어야 |
| 니나노난실로 | 내가돌아간다 |
| A. 인생살이 | 허무하구나 |
| 오늘살면 | 내일가시고 |
| B. 에헤~헤야 | 어허~어야 |
| 니나노난실로 | 염불이로다 |
| A. 염불로나 | 극락을가서 |
| 염불소리에 | 승천하고 |
| B. 에헤~헤야 | 어허~어야 |
| 니나노난실로 | 염불로놀자 |
| A. 간다간다 | 내돌아간다 |
| 죽어지면 | 허스가되고 |
| B. 에헤~헤야 | 어허~어야 |
| 니나노난실로 | 염불로가자. |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3. 달구 소리

- | | |
|---------|-------|
| A. 어허~야 | 달구 |
| B. 어허야 | 달구 |
| A. 인생살이 | 허무하구나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B. 어허~야

달구

A. 죽어지면

허소가되 고

B. 어허~야

달구

A. 인생살이

허무하다

B. 어허~야

달구

A. 오닐가면

하직이로다

B. 어허~야

달구

A. 인생일장이

요렇게허무하다

B. 어허~야

달구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V. 타 령 류

1. 오돌또기

A. 오돌또기

저기춘향나온다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B. 둥그테당실

둥그테 당실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A. 한라산중허리에

시르미익은송만송

서귀포해녀가

바당에든성만성

B. 둥그테당실

둥그테 당실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濟州島部落誌(Ⅳ)

- | | |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가면은가고요 | 말면은말았지 |
| 초신을신영 | 시집을가렌말이파 |
| B. 등그데당실 | 등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제주야한라산 | 고사리맛도좋고좋고 |
| 산지야축항끝에 | 뱃고동소리만조타조타 |
| B. 등그데당실 | 등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성산포양어장에 | 송어가뽕송만송 |
| 청출밭디 | 뭉아지뛰고야논다 |
| B. 등그데당실 | 등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청사초롱 | 불밝혀들고 |
| 춘향이 | 방으로 |
| 감돌아 | 드는구나 |
| B. 등그데당실 | 등그데당실 |
| 여도당실 | 연자머리로 |
| 달도 밝고 | 내가머리로갈꺼나 |
| A. 가면가고 | 말면은말지 |
| 내홀로 | 살다가선 |
| 인생을 | 바렸는구나 |
| B. 등그데당실 | 등그데당실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A. 산에가면	목동의노래요
바당에가면은	좁수의노래로다
B.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밝고	내가머리로갈꺼나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2. 이 야 흥

A. 이야흥	소리에	정떨어졌구나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한라산	상상봉	노프고노픈봉
이야흥		백록담이라
B.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A. 천지연	둘밤에	은어노는구경이
이야흥		좋기도좋구나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성산일출봉		야경주로다
B. 이야흥	야~흥	그렇구말구요
이야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고량부삼성에		나오신그곳은

濟州島部落誌(Ⅳ)

- | | |
|-------------|---------|
| 이 야홍 | 삼성혈이라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사미봉안고도는 | 웨돌게전경이 |
| 이 야홍 | 좋기도좋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산굼부리사냥터에 | 노루가뛰고놀고 |
| 이 야홍 | 좋기도좋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절부암절경에 | 부서지는절소리 |
| 이 야홍 | 처량도하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고내봉연화못이 | 시름꼭는강태공 |
| 이 야홍 | 쑥쑥도하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 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용연야밤에 | 노젓는뱃사공 |
| 이 야홍 | 처량도하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 이야홍 야~홍 | 다꼴을말이나 |
| A. 월대에노송아래 | 선유하는노루가 |
| 이 야홍 | 처량도하구나 |
| B. 이야홍 야~홍 | 그렇구말구요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이아흥 야~흥 다꼴을말이나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3. 영주십경가

3-1.

A. 여기여기는 제주나돈데 옛날옛적과거지사에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탐라국으로 이름높아 삼신산도 안개나속에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성산포 일출봉에는 해 뜨는구경도 마냥좋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라봉 뒷산에는 해 지는구경도 마냥좋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고수에 저말들은 사랑만도 짜고

야논다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A. 2을달 굴림속에는 원님사또만도 노시는구나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요 어허야

濟州島部落誌(Ⅳ)

- | | |
|-------------|---------|
| A. 우리도살다 | 죽어나지면 |
| 허멍이문세가 | 웬말이더나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동쪽으로 | 가신님아 |
| 서쪽으로 | 오실른가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동지설돌 | 기나긴밤에 |
| 잠을자도 | 안오는구나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한라산에 | 명승지로다 |
| 한라산에나 | 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대한민국 | 우리아제주도 |
| 한라산이 | 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우리조상님덜 | 우리조상님덜 |
| 우리동복 | 잘되게 흡서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일본대판 | 가시어도 |
| 내동복만이 | 좋은되가없드라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어머님네아버님네 | 살적에는 |
| 지겟집만지어 | 고생을헛건마는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우리딸덜 | 우리댄나난 |
| 뉘아니해와도 | 밥해영먹고 |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A. 산지포 저돛대위에 갈매기만도 놀고야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방선문 저곶들에는 선녀만도 놀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정방성 저폭포에는 장단만도 치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영실에 저기암은 찬비만 부르는구나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나 명승지로다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산방산 저앞바다에 땡땡망도 흐건도마는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한라산이나 이언덕저언덕

B. 아하~아양 어허~어야 어허요

A : (양금녀 女 · 48)

B : (양옥녀 女 · 51)

3-2.

A. 어야디아 어야디아

어기야 어여라놀자

B. 아아양 어양 어어요

A. 놀기 좋을땐 이십스물

살기나 좋을땐 삼십서른

B. 아아양 어양 어어요

濟州島部落誌(Ⅳ)

- | | |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대한민국에 | 어디를가도 |
| 자랑스럽게 | 되엇구나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산엔가난 | 설장기소리 |
| 바당엔가난 | 좁수의소리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옛날옛적 | 과거지스를 |
| 모두다잇어라 | 꿈이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성산포 | 일출봉에는 |
| 해뜨는구경도 | 마냥좋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사라봉 | 꼭대기는 |
| 해지는구경도 | 마냥좋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한라산에 | 명승지로다 |
| 한라산 | 명승지로다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들물에는 | 동해바당 |
| 썰물에는 | 서해바당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 A. 어서속히 | 놀고가자 |
| 마냥좋게나 | 놀고나가자 |
| B. 아아양 어양 | 어어요 |

A : (양금녀 女・51)

B : (김은옥 女・59) 外 4명

4. 서우젯 소리

4-1.

A. 아아~야아앙 어어~야앙 어어~요

B. 아아~야아앙 어어~야앙 어어~요

A. 놀고가자 자고나가자

저달이지도록 놀고가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썰물에는 동해 바당

들물에는 서해 바당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어서속히나 놀고가자

어서속히나 놀고 나가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이팔청춘의 소년덜아

백발을보고 희룡을말어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인물이늙어 백발이되면

오던님도 돌아나간다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쫓앗을적 먹고쓰고

거들거리고나 놀아보세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濟州島部落誌(Ⅳ)

- A. 요내청춘 늙어지면
 놀자허여도 못노는구나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놀기좋을땐 이십스물
 살기좋을땐 삼십서른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놀고가자 자고가자
 청춘이지나도록 놀고가세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우리도살다 죽어지면
 허맹이문세가 웬말이드냐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돈많은 백만자도
 죽어지면은 허스로구나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 A. 돈없는 요내사람들도
 죽어진다면 허스로다
- B.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A : (양옥녀 女 · 51)

B : (양영수 女 · 71) 外 4명

4 - 2.

- A. 어야디아 방애로구나
 어야디아 방애로구나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기여차소리에 배놓아가멍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어기여차소리에 닳댕겨 간다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들물에는 서해바당
 썰물에는 동해바당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기여차소리에 배놓아가고
 이여차소리에 닳댕겨놓자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우리야인생 한번가도
 한번가기는 분명흔스실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어른도가고 아이도가고
 북망산천이 웬말이더냐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이세상에 태어날적에
 백년을살려고 하얏건마는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단팔십을 못살아도
 저승황천으로 가는구나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 A. 허기야허망흔 세상에
 우리도살다 이별헐걸
-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濟州島部落誌(Ⅳ)

A. 빈손에왔다 빈손에가는것은
나도건님이 아니건마는

B. 아아 아하~양 어~허양 어허요

A : (양옥녀 女 · 48)

B : (김은옥 女 · 59) 外 4명

5 . 한강수 타령

한강수야	깊고야얕은물에다
두둥실찾아서	내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아아	개야개야
내가울면은	내가울지
두둥실찾아서	모두다내사랑이로다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너는치녀	나는총각
백년해로나	맺어볼까
두둥실찾아서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청천하늘에는	잔벨도많구요
자그만나의심정	희망도나 많더라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한번가면	못을세상
악헌마음을	다버리고
천대전손	만대유전
좋은맘으로	살아가자
두둥실찾아서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나がい세상에	탄생혈뎌
빈손에다	놓고요
저세상을	가실적엔
내혼자만이	가노라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다늑으신	우리어머님
곤얼굴에	주름잡히고
검은머리가	백발되고
요런억울이	어데있나
두둥실찾아오소	네가간다고왔는데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보고	희롱을마라
소년들	백발되면
오던임도	되돌아 사니니
어허야 에헤야	
얼싸엄마등게	지어라내사랑아

(양옥녀 女 · 51)

6. 양 산 도

6-1.

에헤~이요

놀자놀자

늪어나지면은

아서라말어라

잡았단홀목이¹⁹⁾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술집에갈적에

공동묘지갈적엔

아서라말어라

잡았단홀목이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산재바당

간장타는건

아서라말어라

응기릉기를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만경창파에

간장타는건

세월세월아

오고가지를말자

저젊아놀자

못노리로다

네가그리말어

수그러지도록

친구도많고

내혼자로다

네가그리말어

수크러지도록

배 띄와놓고

에루나고나

네가그리말어

하야도

좋다좋다

배 띄와놓고

내로구나

봄아봄철아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잡았던 흘목이	수크리지도록
나는못노리로다	
에헤~이요	
날드려가거라	날모사가라
병년의친구야	날드려가라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응기릉기를	하야도
나는못노리로다	
에헤~이요	좋다좋다
청천하늘에	잔벨도많고
자그만이가슴엔	희망도많다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를말라	
잡았던 흘목이	수크리저도
나는못노리라	
에헤~이요	있는정없는정이다
모두락비치락으로	씩씩썰어다
한강수에	던져버리고나
없는정을있는듯이	살아나보세
아서라말어라	네가그리말어
영기릉기를하여도	못노리로다
에헤~이요	좋다좋다
술집에갈적에	친구도많고
북망산천가실적엔	내혼자간다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濟州島部落誌(Ⅳ)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명스항에	병이나빌고
꼭스항에	운이나빌자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명스항에	병이나빌고
꼭스항에	운이나빌자
세월세월아	봄아봄철아
오고가지를말자	
아까운내청춘	다늬어간다

(양금녀, 女 · 48)

6-2.

- A. 에헤에에이여 양도명천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고 구경 도화로다
 아서라 말어라 네 그리 말어라
 사람의 팔세를 네가 그리 말아
- B. 에헤에에이여 어실어실 출거든 나의 품에 자고
 베개가 높거든 나의 팔에 자라
 아서라 말어라 네가 그리 말아
 아까운 청춘이 다 늬어진다
- A. 에헤에에이여 가는 낭군 오는 낭군 정들여 놓고
 이별이 좇아서 나는 못사리라
 아서라 말아라 아니 못노리라
 잡았던 홀목이 수크러지도록 나는 못노리라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에헤에이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추동경이 달 솟아온다

B. 에헤헤에이여 우리나라 임은 어디나 가고
날 생각 아니허는 나의 임이로구나
세월세월아 네월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A : (김대선 女・61)

B : (김은옥 女・59)

7. 창부타령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 릴리리야
리리리리 닐리리	닐리리야
놀로나가자	놀로나가자
동복리가 좋더니	놀로가자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절씨구
아니까라놀지는	못허리라
아니아니놀지는	못허리라
칠년대 한	가문날에
벋발갈이도	반긴사랑
사랑사랑	내사랑아
어화등등	내사랑아
사랑이라한게	무엇인지
천리를가도	내가따라가고요
만리를가더라	내가따라간다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떠리리야

濟州島部落誌(Ⅳ)

아니까라놀지는	못허리라
너는너의집의	기둥자여
나는우리집의	단뿔래기
너와나와	살게만되면
없는금전을	한탄을 말고
깊이나든정을	변치말자
리리리리 널리리 리띠리리리 띠리리리	
널리리 널릴리아	
신고나명산	난자헌봉에
바람이나분다고	쓰러지랴
송죽같이도	굳은마음
천만금준다면	허락허리
몸은비로서야	기생일망정
절개나조차	변할쏘냐

(김창용, 男 · 50)

8 . 장귀타령

새베리양복	입단몸에
갈증이찌끼가	웬일이냐
지끼지름 ²⁰⁾	브르단머리에
낙지발될줄을	누가안냐
공공단이불	뿔으단몸에
담요와래기가	웬일이냐
새베리양복	입단몸에
갈증이찌끼가	웬일이냐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아리랑고개에	다넘어간다
우리가살민	뭇해나살코
와래기찹새길	신고야
어느제나	어느꺼지갈경고
에라둥둥	장귀소리에
잘도	넘어가는구나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여
성주로다	성주로다
이집의성주가	어디더냐
경상도	안동땅에
개비헌이가	받았더니
솔씨한장을	탔더니
아덜은나난	효재고
똥은나난	열네충신으로만나간다
에라대신이여	

(이자생, 女 · 78)

9 . 자장가

〈자장가〉

자랑자랑	우리애기
자랑자랑	어서자라
윙이자랑	자랑자랑
누영자라	물질허곡밥허곡
야야	흔저웠자라
느네아방	बाट디서

濟州島部落誌(Ⅳ)

더디왕젠

욕살허고

웁이자랑

웁이자랑

누웁자라

우리애기

자장허저

어는제 랑자코

자장자장자장,

저디가는

검등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흔저자라

자라

지폰지폰

소에

드리 청

내척헌다

헌저

누웁자라

자랑자랑자랑

(김완문, 女 · 68)

Ⅵ-[1] 전 승 동 요

1. 꿩꿩장서방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그럭저럭

살았지

무얼먹고

사나

어염어염

들암시난

뒷발에

강

콩 한방울

풀 한방울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먹영	살암따
콩 하나	봉가다가
청사옥조	저고리에
자주고름	달아놓고
백해명주	동전달고
예엄예엄	돌다보니

(이경봉, 女 · 76)

2. 매 · 솔개를 노래하며

매천이광	똥소래기들아
느네국이	느레기여더라
매천이여	똥소래기야
매천이광	똥소래기야
느네 국이나	요래기여

3. 뱀을 보았을 때

너저의집	노픈집으로들어가
뭇헤렌	나뎡겨

(김완문, 女 · 68)

4. 노래제목

빙빙	돌아라
시계바늘	돌아라

濟州島部落誌(Ⅳ)

어멍아방	왓찌
국허라	밥허라
어멍아방	왓찌
국허라	밥허라

(김완문, 女 · 68)

5. 비올때 부르는 노래

비야비아	오지말라
장통밧디	물꼴람찌
말축새끼	시집갈때
멩지장옷	다젓는다

(이경봉, 女 · 76)

6. 다리를 포개서 놀때

흔다리인다리	거천개
신나노자	버든개
어르릉떠르릉	들각

(김완문, 女 · 68)

7. 머리깎은 아이 놀릴때

중중까까중	시러리방아중
중볼래기	풀볼래기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모진년의

x대加里

하늘끝의

덩덩

(김완문, 女 · 68)

8. 이빠진 아이 놀릴 때

8-1.

새니랑

돌아오곡

묵은니랑

돌아가라

앞담

어뤄졌저

뒷담

어뤄졌저

앞장몰애기야

새니돌아온다

묵은니랑

던져블라

(김완문, 女 · 68)

8-2.

까치야

까치야

헌이줄께

새이다오

헌이는

돌아가고

새이는

돌아오라

(이자생, 女 · 78)

Ⅵ-〔2〕. 놀 이 요

1. 고무줄놀이 할때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 ‘내가’의 개사곡〉

포니의 집은 캔디의 고향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캔디는 자랐지 꿈을 꾸었지

아름다운 천사의 꿈을

첫사랑은 나의 안소니

○○○의 사랑을 받고

캔디는 밤하늘의 별이 되었고

내 앞에서 웃고만 있네

인정받고 사랑받고 파들락거리면

캔디와 결혼하겠소

내가 만약에 안소니라면

캔디와 결혼하겠소

(김민정, 女 · 11 外 12명)

무찌르자 공산당 삼천만이 하나로

배달이 가는 길은 승리로구나

나가자 나가자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자유의 길로

(김민정, 女 · 11 外 12명)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단 이
공주마마 납신다 또 납신다

• 우리회사 사장님은 검은 고양이

• 사랑하는 언니야 뒷동산에 올라가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맞았더래요

샤빠샤빠 하이샤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빠샤빠 하이샤빠 친구백 팔십구년도

(김민정, 女·11 外 12 명)

2. 줄넘기 할때 부르는 노래

2-1.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신발벗고 양말벗고

들어오세요

(김민정, 女·11 外 12 명)

濟州島部落誌(Ⅳ)

2 - 2.

엄마

왜

학교갈래

가라

선생님

왜

몇점

빵점

엄마

왜

빵점

공부해라

엄마

왜

학교갈래

가라

선생님

몇점

백점

(김민정, 女·11 外 12명)

3. 손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

3 - 1.

옥상

어디가요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쉐 잡으레	가요
몇마리	잡았소
두마리	잡았소
볶아먹고	지저먹고
산에	올라가고
북을	쳐오너라

(김민정, 女·11 外 12명)

3-2.

감자에	썩이나서
이파리가	나고
도라이	도라이샤

(김민정, 女·11 外 12명)

3-3.

니뻘고니	삼사나고
룻데햇데	햇세나고

(김민정, 女·11 外 12명)

4. 말놀이(말이어가기)

4-1.

원숭이 똑고망은 시빨강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濟州島部落誌(Ⅳ)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짙다
짙 것은 소금
소금은 희다
흰 것은 강물
강물은 짙기다
짙긴 것은 고무줄
고무줄은 검다
검은 것은 까마귀
까마귀는 난다
나는것은 나비
나비는 춤춘다
춤추는 건 무당.

(김민정, 女・11外 12명)

* 둥그렇게 모여 다리를 걸고 손뼉을 치며 빙빙도는 놀이.
뛰는 놀이에서 불림

4 - 2. '숫자놀이'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서 잘잘잘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두울하면 두부장수가 종을 울리며 잘잘잘
세엿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네엿하면 넷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객선이 손님을 태운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칠득이가 장가를 간다고 잘잘잘
여덟하면 여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아홉하면 아버지가 신문을 본다고 잘잘잘

(김민정, 女·11外 12명)

‘요일놀이’

월요일은 월급타고
화요일은 화장하고
수요일은 수박먹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금요일은 금반지 끼고
토요일은 토끼사냥
일요일은 알기쓰기
월화수목금토일

(김민정, 女·11外 12명)

5. 개사곡

5-1. ‘서울찬가’를 개사
종이울리네 문이열리네

濟州島部落誌(Ⅳ)

담임선생님	들어오시네
지겨워라	시험시간
내쪽을	씩히는구나
연필들고	시험을봐도
보나마나	빵점이겠지
종아리아	좀참아라
다음부터	잘보겠다.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5 - 2.

고무신	고무신	우리	고무신
삼천리	강산에	우리	고무신
막걸리	막걸리	우리	막걸리
삼천리	강산에	우리	막걸리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5 - 3.

아랫바지	나팔바지
우에는	티셔츠
저판장에	여자선
내 맘에	꼭들어
야임마	일루와바
나하고	싸워보자
이래봐도	여자지만
태권도	3 단이다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5-4. '개구리 왕눈이' 개사

왕눈이팬티 쌍방울
아로미팬티 유이나
투투팬티는 찢어진 팬티
가재팬티는 구멍 났 팬티
무지개 연못에 팬티 패션쇼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5-5.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가시고
할머니는 몽둥이들고 쫓아다니네
돈데 까루까루 돈데요
돈데요 돈데요 돈데요

(김민정, 女 · 11 外 12 명)



제보자

강미순(女 · 11)
김민정(女 · 11)
강재경(女 · 11)
김병수(男 · 13)
김소형(女 · 11)
김승현(男 · 12)
김은실(女 · 11)
김재연(女 · 12)
정미경(女 · 11)
양미선(女 · 8)

VII. 却 註

- 1) 난바르 : 船上生活. 배 위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물질을 했던 것을 말한다.
- 2) 이수장 : 말이 풀을 먹던 넓은 땅으로 각 마을별로 장소를 정해놓고 있다.
- 3) 코알링몰 : 얼룩말
- 4) 띠미곶 : 마을이름을 나타내는데 정의곶을 일컫는다고 한다.
- 5) 화정 : 배의 심부름꾼
- 6) 남조대 : 담배대
- 7) 입산남도 휘어돈내야 : 생목(生木)도 꺾는데
- 8) 풍미 : 소리
- 9) 옥종에 : 좋은땅
- 10) 이성당호난 : 살아나난
- 11) 구엣꽃 : 9월에 피는 꽃, 들국화
- 12) 우념당 : 울음우는 집
- 13) 백년동계~본다 : 백년가약을 맺는다.
- 14) 남당썰기떡 : 밀기울따위로 주먹같이 둥글게 만든 떡. 굶은떡
- 15) 검은공지 : 검은 눈동자
- 16) 혼반에논다 : 함께논다. 즉,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
- 17) 성도언만 : 날씨가 좋으니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
- 18) 열 보달 : 열집
여기서 '보달'은 한 사람이 어깨에 질 수 있는 분량을 뜻한다.
- 19) 홀목 : 손목
- 20) 지끼지름 : 밀기름. 옛날 머리에 발랐던 기름의 일종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說 話

指導教授：金炳澤

指導補助：玄丞桓 李成俊

班 員：梁柄哲(3) 尹淑伊(3)

高秀賢(3) 金明淑(3)

金廷恩(1) 金德仁(1)

宋聖嬉(1) 朴英蘭(1)

金沃蘭(1)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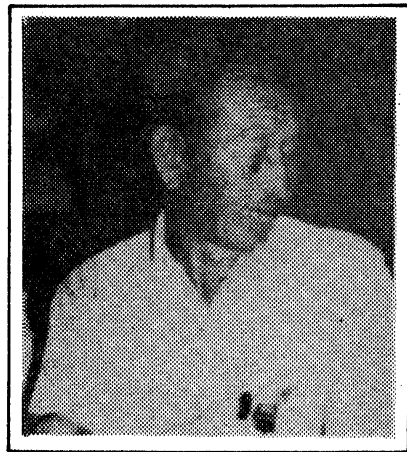
1. 호종단(고종달) 이야기
2. 박효자 이야기
3. 힘센 이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
4. 목련존자 이야기
5. 저승길 알려준 친구
6. 삼형제 이야기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는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 한 시쯤이어서 일
부러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폭낭 밑으로 찾아갔다. 모여있는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을 택하여 이야기를 요청하니 쉽게 말문을 여셨다. 그러나 연세가 지극
히 드신지라 말하면서도 문맥상의 엇갈림은 조사자들이 정리하기에 애로점이
없지 않았다.*

[제보자 1]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두일 (男 · 78)



〈 호종단 이야기 〉

호종단은 육지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그저 영산이라고 해서 어디 산자리나 구해볼까해서 들어와서.¹⁾ 종달리에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요” 허니까 “종다리요” 허는거라. ‘아 이거 벌써 내 이름을 알았구나’ 해서 그 사람이 야코가 죽어서.²⁾ 호종단이 산에 올라가서 돌아보다가 옛날 할아버지들이 산터를 보러 텅기는³⁾ 것을 보아서. 호종단이 산에 가서 맥을 쪼어서 내려오다가 맥에다가 침을 콧았거든. 그런데 호종단이 침을 콧아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침을 고쳐부러서.⁴⁾ 호종단이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침이 없는거라. 아! 어째서 침이 없는가해서 궁금해 허니까 산터 구경허레 ㄴ치⁵⁾ 올라간 사람이 “아! 이거 침을 도둑 맞았으니 여기에 당신이 자리를 구하려면 산을 써라.” 허니까 그래서 거기에 산을 써서 그 호종단이 잘 살았덴 해나서.⁶⁾

〈 박효자 이야기 〉

제보자가 호종단 이야기를 끝마치고 일어서려다가 제보자가 미리 조사되어진 효자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1) 들어왔어 2) 기가 죽어서 3) 보러 다니는 4) 고쳐 버렸다. 5) 같이 6) 살았다고 했었다.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사는 박효자가 있었는디 어머니가 홀로인지라, 자꾸 몰래 남자를 찾아다니는거라.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냇물 때문에 멀리 돌아다니는거라. 그래서 박효자가 어머니가 가깝게 다니게 돌다리를 놓아 드려서.

어머니는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어찌 알아서 ‘아! 이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허는 것이 효자라’ 해서 박효자라 이야기 해서.

< 힘 센 이씨 머슴 하르방 이야기 >

옛날에 요¹⁾ 이씨 집에 머슴살이 하는 힘이 좋은 하르방이 있었는데 하르방은 성심 성의껏 일을 잘 하는디, 머슴살이시키는 주인 어른은 품삯을 잘 안주거든.

하루는 서²⁾ 몰아서 밭 갈래³⁾ 갔거든. 밭 갈래 가니까 혼 이틀에 갈 걸⁴⁾ 혼 낮 전에 다 간거라. “힘이 좋아났주게” [조사자 : 그 머슴 하르방이 마썸?] [제보자 : 그렇지]

주인이 이제 점심해 가서 보니까 밭을 다 갈았거든. “아! 이거 어쩐 일 이썸⁵⁾? 아! 혼 이틀에 갈 걸 어떻게 영 낮 전에 다 갈았구나” 허니까 그 하르방이 하는 말이 “배고픈 집에(김에) 있는 힘을 다행⁶⁾ 다 갈았져” 허는 거라.

아! 그때 머슴 하르방이 밥 먹는 시간에 서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거라. [조사자 : 무사 죽어신고 마썸? ⁷⁾] [제보자 : 아! 그야 하도 몰아댕기니까 지쳐서 죽은거지].

1) 여기 2) 소

3) 밭을 갈러 4) 약 이틀에 갈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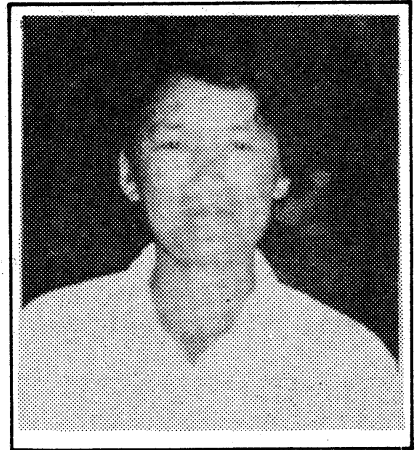
5) 일입니까 6) 다하여

7) 왜 죽었습니까.

[제보자 2]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양금녀 (女 · 48)



*조사자가 제보자택을 찾았을 때 제보자는 가사일로 바쁜 와중이었다. 그래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하여 몇 시간 뒤에 찾아갔더니 흔쾌히 맞아주어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담소를 나누다가 제보자가 흥이 났던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목련존자 이야기 〉 - 모논존자

목련존자(왕자)가 있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신디,¹⁾ 아들이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돈을 방탕하게 쓰는데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사실을 부하들을 시켜서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해부런.²⁾

아들이 집에 돌아와 사는데 임금의 아들로서 걱정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마음이 막 심란해.³⁾ 집에 이시난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또 심란허곡(하고), 어디론가 나가고싶고 해서 산천에 가서 좋은 뜨근새⁵⁾ 우는 데서 마흔아흐레를 살아서.

나무와 새들이 막 있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서 마흔아흐레를 살면서 거기서 불경 공부를 3년 해서 그 분이 석가의 부처님되어서. 바닷⁶⁾에 가면 유

1) 갔는데 2) 하였다. 3) 심란하였다.

4) 있으니 5) 두견새 6) 바다

황할망이나, 어디에 가면 당할망이나, 조왕할망이나 다 여잔디 이 분은 날
자이기 때문에 모논존자가 3년간 불경 공부를 해서 죽은 귀신도 보게 되어
서게.⁷⁾ 하루는 부처님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
니는 안보옵수다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부처님은 “너네 어머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팔만산천 무관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니 목
련존자는 아무리 나빠도 자기 어머니니까 아까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끌어들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여서. 그러
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칠월 보름날, 일년에 한 번 극락세계 문이 활짝 열
리는 날은 저승에서 왔다갔다하는 날인디 너의 어머니는 그날도 나올 수가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 먹는 음식 백 가지 해가지고 부처님
에게 올릴 때에 몇 백 명의 신도들이 함께 불러주는 염불 때문에 무관지역
의 문이 열린다⁹⁾ 그때에 목련존자가 자기의 어머니를 끌어내랴.¹⁰⁾ 그 말대로
하면¹¹⁾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극락세계로 가서. (백중의 역사기원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말을 함)

〈저승길 알려준 친구〉

옛날 옛적에 세 동무가 이신디¹⁾ 한 번은 그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우
리 약속허자, 우리 세 사람 중 제승²⁾을 먼저 가는 사람은 제승이 있나 없
나를 뵈 왕 왕 알아주기로³⁾” 해신디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죽어
서 제승가니까 염라대왕안티⁴⁾ 막⁵⁾ 세상에 환생만 해줍센 소청헤⁶⁾ 하도 소
청하니까 염라대왕이 큰 배엄⁷⁾으로 환생해 주었는데 그 큰 배엄이 항상 그

7) 보게 되었다. 8) 안 보입니다. 9) 열리니

10) 끌어내라고 하였다. 11) 하여

1) 있었는데 2) 저승 3) 보고 와서 말해 주기로 4) 염라대왕에게

5) 계속 6) 해 주시라고 간청하였다. 7) 뱀

동네에 있는거라. 근데 배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못허는거라. 말을 못
허니까 잘도 답답할거 아니. 한번은 그 동네에 잔치집이 있었는데 배임이 잔
칫집 구들⁸⁾에 가서 그 동무들이엿⁹⁾ ㄹ치⁹⁾ 앉아서. 동무들이 “아이구 이
것 나쁜놈으거” 하면서 확 과련 들렁 대경 내부런.¹⁰⁾ [조사자: 과련 마썸?]
[제보자: 웡 매장시키는 것]

경허난¹¹⁾ 그 배임이 죽엿¹²⁾ 또 제송갈거 아니. 제송가서 염라대왕께 또
세상에 환생만 시켜주랜(주라고) 막 청을 드니까 염라대왕이 소로 환생시
켜쥼.¹³⁾ 사람 영혼이 소에 들어간¹⁴⁾ 소가 막 놀시란,¹⁵⁾ 소가 친구안테
강¹⁶⁾ 빨이로¹⁷⁾ 막 찌르면서 말을 허젠⁸⁾ 해도 못허는거라. 소가 막 빨이로
쥼러 부니까 소를 잡아 먹어버려서게.¹⁹⁾ 경허니까. 또 제송갈거 아니? [조
사자: 세번째 가는거다 예?] [제보자: 그렇지] 제송가서 또 환생만 해 줍
센²⁰⁾ 몇 십년을 그렇게 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거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섯살 되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다 알아
부는거라. 일곱살 되어서 이 아이가 옛날 친구를 찾아가서 “야, 아무재 있
느냐.” 허니까 종놈이 그집 대감한테 강(가서) “저기 쥼끌락한²¹⁾ 아이
가 와서 대감이 있느냐 허는디 사람은 죽지만²²⁾ 목소리가 큼니다.” 허니까
대감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라.” 해서 들어온 아이를 보니까 정말 쥼끌
락한거 아니? 그 아이가 말을 허는디 “내가 동무들과 아무날 모여 앉아서
제송을 먼저 가는 사람은 제송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지고 왕²³⁾ 이야기
해주기로 해부난 염라대왕한테 줄란²⁴⁾ 황구렁이(구렁이)로 환생한 잔치집
에 가서 너네 즈ㄹ티²⁵⁾ 앉으난 나를 확 과련²⁶⁾ 던져 죽게허고. 또 제송가

8) 방 9) 같이 10) 나뭇가지 등으로 집어서 던져버렸다. 11) 그렇게하니

12) 죽어서 13) 시켜주었다. 14) 들어가니 15) 사나워 16) 친구에게 가서

17) 빨로 18) 하려고 19) 먹어버렸다. 20) 해 주시라고 21) 작은 22) 작지만

23) 와서 24) 부탁하여 25) 옆에 26) 집어서

서 이번엔 소로 환생했는데 내가 뽕이로 찢러부니까(찢러 버리니까) 잡아 먹어불고 ²⁷⁾ 경허난 염라대왕께 막 청을 드려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네 신디 ²⁸⁾ 저승길을 알아주레 왔져 ²⁹⁾ ” 하면서 이 아이가 대감안티 그런 이야기를 해줬젠. ³⁰⁾

〈삼형제 이야기〉

옛날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2트면 ¹⁾ 지나가던 법사나 심방무당이나 다 다녀가도 이 아들 삼형제는 기르지 못허켄. ²⁾ 경허니까 이제 부모들이, 옛날엔 그렇게 옷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비단 세동씩 저가지고 아홉동 지왕으네 ³⁾ 절에 삼년을 살렌. ⁴⁾ 큰 절에서 삼년을 살멘(살면) 그 멍⁵⁾을 이제 꺾은 행년 ⁶⁾을 다 던져 버리고 이 아이들이 멍 장수할 수 있다. 그추록 해주게. ⁷⁾ 그걸 다 지왕 그 절에 가서 삼년을 사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삼년을 채와서(채워서) 자기네 삼년동안 공부하라 한 것을 다 해서 나오는데, 딱 일주일을 앞두고 버리니까 ⁸⁾ 그냥 집에만 가그중 ⁹⁾ 그 아이들이 환장을 하여 법사들에게 집에만 가켄 ¹⁰⁾ 허니까 법사는 벌써 알아가지고 ‘집에 가면 안된다’ 안되니까 ‘가지말라해도 막 가켄만 허니까 그 법사가 비단 세동씩 아홉동 췌(주어서) 보낸 것 그냥 저 보내버려서. 저오다가 막 배고팡 ¹¹⁾ 걸어오지 못허영(못하여),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우리 물이나 혼직 줍써 ¹²⁾”, “식은 밥이라도 혼직 줍써 막 배고팡 죽어지쿠다. ¹³⁾ ” 그추록 말허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재수가 없젠허니까 ¹⁴⁾ 중놈이 와서 이제 재수없게 한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허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우리 그렇게 보지맙서(마십시오), 우린 비단도 세동씩 아홉동 지어수다.”

27) 먹어버리고 28) 너희에게 29) 가르쳐 주려고 왔다. 30) 해 주었다고 함.

1) 지금 같으면 2) 못 하겠다고 3) 저가지고 4) 살라고 함 5) 명(命) 6) 액년

7) 그렇게 했다. 8) 바라니까 9) 가고 싶어 10) 가겠다고 11) 배가 고파서

12) 한사발 주십시오. 13) 죽을 것 같습니다. 14) 없으려 하니까

濟州島部落誌(Ⅳ)

그러니까 그 광영생의 부인이 그것에다가 탐내가지고 “아휴 계민(그러면) 이레오라¹⁵⁾”고 하여서 불러다가 탁주를 복썩¹⁶⁾ 맥여버려서.⁷⁾ 맥이니까 막 취한. 배고픈데 밥 먹고 딱시고¹⁸⁾ 허니까 스랑스랑¹⁹⁾ 서이가²⁰⁾ 다 누여버려서. 누우니까 광영생의 부인이 춤지름²¹⁾ 피와당 컷고망에다²²⁾ 스룩스룩²³⁾ 지러버려서.²⁴⁾ 지러부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 죽으니까 이제 수청강 연못에 그 시체를 던져부려서. 던져부러신디 혼번은 물을 물 먹이젠 광영생이가 가시난²⁵⁾ 곱딱한²⁶⁾ 꽃이 그 수청강 연못에 물을 일로왕²⁷⁾ 물 먹이젠허민²⁸⁾ 못먹게 허고 저절로 강 물 먹이젠허민 못먹게 허고 막 허난 꽃은 암만²⁹⁾ 고와도 몽니머리가³⁰⁾ 나쁘다고 물을 물 못먹게 햄젠(한다고) 그 꽃을 따완.³¹⁾ 그리하여 광영생이가 그 꽃을 증문더레³²⁾ 딱 거난 그 꽃은 뒤에 장 거르레³³⁾ 가젠 허민 광영생의 부인 머리를 딱 트더불고³⁴⁾ 허난 “아이고, 이 꽃은 곱긴 고와도 몽니가 나쁘다”허영 이제 고팡공장³⁵⁾ 에다 걸민³⁶⁾ 이제 고팡에 썰 거르레 가젠허민 그 꽃이 딱 건주와 불고허여³⁷⁾ 이 꽃은 너무나 곱긴 고와도 몽니가 나쁘다고 불더레 갔다당³⁸⁾ 딱 지더부러서게.³⁹⁾ 지딩 불을 쏴라부러서게.⁴⁰⁾

동네 할머니가 불 담으레 왕 보난⁴¹⁾ 곱딱한 구슬이 세개가 있거든. “아이고, 여기 고운 구슬 세개가 있져”⁴²⁾ 허니까 광영생의 부인이 허는 말이 “아이고 나 구슬이 거기 털어져수다”허영 동네 할망 손에 있는거 심영⁴⁴⁾ 먹여버려서. 먹여버리니까 혼꺼번에⁴⁵⁾ 아들 세형제를 낳는거라. 아들 셋을

-
- 15) 이리 오라 16) 듬뿍 17) 먹어 버렸다. 18) 따뜻하고 19) 편안하게 차츰차츰
20) 셋이 21) 참기름 22) 끓여와서 컷구멍에다 23) 조금씩 조금씩
24) 부어 버렸다 25) 가니까 26) 고운 27) 데리고 와서 28) 먹이려고 하면
29) 아무리 30) 마음씨가 31) 따고 왔다. 32) 증문에다 33) 간장 뜨러
34) 뽑아 버리고 35) 창고 벽걸이 36) 걸면 37) 귀찮게하여 38) 가져다가
39) 불에 넣어버렸다. 40) 불에 넣어 태워버렸다. 41) 불 담으러 와서 보니
42) 있구나 43) 거기 떨어졌습니다. 44) 때앗아 45) 한꺼번에

낱아가지고 그 아들이 명필이거든. 아들이 공부를 막 잘해서 과거에 급제했주게. ⁴⁶⁾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 절해신디 ⁴⁷⁾ 한각 죽어붙었주게. ⁴⁸⁾ 켜 ⁴⁹⁾ 아들도 소문나게 공부 잘행 ⁵⁰⁾ 어머니 앞에서 절 받읍서 ⁵¹⁾ 인사허니까 죽어부러. 작은 ⁵²⁾ 아들까지 그렇게 막 공부 잘해신디 아들 셋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임금에게 광영생이와 그 부인이 거기 가서 막 울며 우리 애기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쳐서.

하루 ⁵³⁾ 는 강림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불 상에 ⁵⁴⁾ 를 아니나온 걸로 해서 임금이 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부락 사람이 다 모인디서 ⁵⁵⁾ 임금이 “너는 상에 만나와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염라대왕한테 갔다오라” 허는거라. 광영생이 아이 셋이 죽은 것을 알아오렌. ⁵⁶⁾ 너는 염라대왕을 모셔오라 경허는거라. 그 강림이는 첩만 아홉을 해가지고 ⁵⁷⁾ 큰어명 ⁵⁸⁾ 네 집에 들어오질 안허주게. ⁵⁹⁾ 들어오질 안허는디 이제는 죽게 되어서. 염라대왕이 어디 있는 줄 알앙 ⁶⁰⁾ 강림이가 가느니 ⁶¹⁾ ? 모르니까 죽게되어 첩을 아홉 사람을 해도 하루는 큰각시헌테 강 ⁶²⁾ 나가 죽게되었다고 날 살려달렌 막 스정허난 ⁶³⁾ 어떻행 ⁶⁴⁾ 죽게 되시난 ⁶⁵⁾ 허난 상에 만나온 걸로 헐. 나가 염라대왕 강 모셔오렌헝젠 ⁶⁶⁾ 큰각시헌테 얘기허난 ⁶⁷⁾ 큰각시가 쌀 ⁶⁸⁾ 을 해영 막 일곱벌에 쳐가지고 막 상쌀 ⁶⁹⁾ 로만 해서 떡을 해영 ⁷⁰⁾ 집에서 불공을 드려서게. 조왕할망헌테 막 불공을 드령 ⁷¹⁾ 떡 일곱개를 도포 속에 담아들어서. 강림이가 떡을 담아가지고 제승을 가느디, 가느라고 허면 할망이 또각또각 ⁷²⁾ 앞에 걸고, ⁷³⁾ 가느라고 허면 또각또각 또 걸고. 강림이가 그 할망을 미쳐

46) 급제했어 47) 절하였는데 48) 갑자기 죽어 버렸다. 49) 둘째 50) 잘해서
51) 절 받으십시오 52) 작은 53) 하루 54) 불교적 용어 55) 모인 곳에서
56) 알아 오라고 57) 두어서 58) 큰부인 59) 안 하였어 60) 알아서
61) 가겠느냐? 62) 가서 63) 사정하니 64) 어떻게 하여 65) 되었으니
66)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한다. 67) 이야기 하니 68) 쌀 69) 햅쌀 70) 만들어
71) 드려서 72) 외태어 73) 견고

집 직 헌디 미쳐지질 못허는거라. ⁷⁴⁾ 점심을 먹젠 ⁷⁵⁾ 앉으니까 할망도 점심을 먹젠 앉으는거라. 떡을 먹젠 시루떡반을 딱 보난 그 할망도 자기 떡과 똑같은거, 2튼 빛이 딱 들어맞는거라 그것이 강림이 부인의 공덕이라. 경해가지고 ⁷⁷⁾ 그 할머니가 일로일로 ⁷⁸⁾ 나오면 백강생이가 나온젠 길을 가르쳐줘서. 가르쳐주난 점심 먹고 가당보니깐 ⁷⁹⁾ 백강생이가 딱 나완, ⁸⁰⁾ 그 백강생이 조름에 ⁸¹⁾ 강을 딱 건너가난 염라대왕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는 왔느냐”고 하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허난 그때는 안가젠 ⁸²⁾ 했지만 너의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아무날 아무시로 가겠다 허난 아무날 아무시로 상예를 맨덴. ⁸³⁾ 강림이가 왕 2난 ⁸⁴⁾ 그날을 딱 매영 이시난 ⁸⁵⁾ 염라대왕이 오난 벼락천둥이 막 치는거라. 염라대왕이 말을 허는디 “광영생의 부인이 사람 셋의 궂2망에다 춤지름을 피왕 죽여버리니까 경 ⁸⁶⁾ 됐다” 허난 염라대왕이 강림이를 데려가젠. ⁸⁷⁾ 임금이 우리가 가지겠다고 들이 드트니까 ⁸⁸⁾ 염라대왕이 경허민 ⁸⁹⁾ 너희들이 육체를 가질라 ⁹⁰⁾ 영혼을 가질라? 허난 임금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겠다고 허니까 염라대왕이 경허민 나는 영혼을 가져간다 허영 ⁹¹⁾ 강림이 혼을 확 빼가져 가버리니까 그 강림이는 딱 죽어부러서. ⁹²⁾ 그때부터 죽은 사람은 혼을 불르고 했젠. ⁹³⁾

수청강 연못에 강물을 다 평 ⁹⁴⁾ 옛날엔 영영 ⁹⁵⁾ 허민 사람을 살렸젠 헛게. ⁹⁶⁾ 그래서 아들 셋을 살려완 ⁹⁷⁾ 잘 살았젠 ⁹⁸⁾

74) 앞질러 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앞지르지 못했다. 75) 먹으려고

76) 같은 색깔 77) 그렇게 해서 78) 여기 여기로 79) 가다 보니까 80) 나와서

81) 뒤따라서 82) 안 가려고 83) 맨다고 함. 84) 와서 말하니 85) 매고있으니

86) 그렇게 87) 데리고 가겠다고 함. 88) 다루니까 89) 그렇다면 90) 가지겠느냐

91) 하여 92) 죽어 버렸다. 93) 부르고 했다고 한다. 94) 퍼서 95) 손모양(말로

표현 못함) 96) 살렸다고 한다. 97) 살려와서 98) 살았다고 한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信 仰

指導教授：許 椿

指導補助：高光敏

班 員：吳芝蓮(4) 李盈周(4)
洪希慈(4) 姜成噉(3)
高敬林(3) 金晟喜(3)
南和林(3) 吳銀政(3)
夫恩實(2) 高恩眞(1)
金有慶(1) 朴仙一(1)
辛惠仙(1) 吳修仁(1)

目 次

I. 概 觀
II. 公認宗教

III. 部落信仰
IV. 個人信仰

I . 概 觀

이 보고는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나흘간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동북리는 총면적이 54.3 *km*²로, 비교적 작은 마을이었으나 마을사람들 간의 단결심은 대단하여

濟州島部落誌(Ⅳ)

마을의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 조사팀은 공인종교와 무속신앙,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각기 난점이 있었다. 공인종교 부분은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주변적 경향이 강하고 부락민이 적은 이유로 마을 내에 위치한 절이나 교회가 없어서 인근 마을로 조사를 나가야 했다. 무속신앙 부분은 이 마을의 거의 모든 곳을 주관하는 심방이 돌아오는 날까지 만나지 못해서 곳이나 비נם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축문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4·3사건 때 마을이 불타 축문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은 많으나, 4일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종교, 부락신앙, 개인신앙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公 認 宗 教

東福里의 공인종교에는 佛教, 基督教이 있으나 대개는 불교를 믿고 있다. 행정구역상 주변 영향이 많고 부락민이 적어서 절이나 교회는 없으며 불교 신도들은 서김녕과 동김녕에 위치한 절에 많이 다니고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토속적 민간신앙을 깊게 믿고 있고 기독교인은 1명에 불과하다. 절과 교회가 마을 내에 없어서, 이 마을 신도들이 많이 찾아 가는 주변의 절에 대해 알아 보았다.

〈佛 教〉

(1) 서김녕

① 명칭 : 백련사

② 종파 : 조계종

③ 위치 :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1118번지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④ 연혁 및 현황 : 관음사를 불당으로 한 포교소로써 이화선 스님의 포교 활동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1942년에 처음 설립됐고 1981년에 재건된 백련사에는 현재 6명의 스님이 있다. 대웅전 상단의 장식은 관음상을 앞세운 석가와 제자백가, 사천왕을 은행나무에 조각하여 금도금을 한 부조로 매우 특이하다. 바다 염기에 의한 부식으로 대웅전 밖에 위치하는 큰 종각은 없고, 대웅전 내부에 작은 범종이 있다.

⑤ 신도 : 함덕, 월정, 제주시, 김녕, 동북, 재일교포 등에 이르며 여신도는 노년층이 많고 남자는 젊은층이 다수이다. 동북리민 중 60여 명이 이 절의 신도이다.

⑥ 행사 : 매달 최소 한 번씩의 행사를 주관하는데, 농번기인 6·8·10월은 쉽다. 주된 행사로는 매 절기마다 정월보름, 초파일, 칠월칠석, 동짓달에 포교를 위한 설법강의 등이 있다. 2월과 9월에 故魂을 위한 영각제가 있어 대체로 6·25사변, 4·3사건, 남양호사건, KAL機 사건 등 집단적인 민중수난을 기리고 각 가정을 위한 위령제가 있다. 3월에 산신기일과 용왕제를 지낸다.

(2) 동김녕

① 명칭 : 금룡사

② 종파 : 조계종

③ 위치 :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④ 현황 : 1939년에 설립된 금룡사는 현재 비구니인 3명의 스님이 있다. 포교당의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생절간으로 기복불교적인 성격이 짙다.

⑤ 신도 : 월정, 덕천, 김녕, 동북, 제주시, 재일교포 등에 이르며 동북리 주민으로 20여 명의 신도가 있다.

⑥ 행사 : 2월 6일 ~ 8일, 3일간 용왕기도가 있는데 이는 마을제의 형식을 띤다. 4월 14일 ~ 16일은 산신기일을 지내고 7월 7일에 칠성제가 있다.

〈基督教〉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동북리에는 교회가 없으며, 교인 또한 한 명에 불과하다. 조사팀은 이처럼 공인종교의 포교 상태가 부진함에 대해 참고가 될까하여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Ⅲ. 部落信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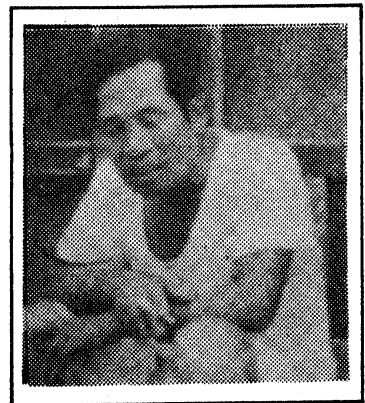
1) 醺祭

愛鄉之心으로 행해졌던 醺祭는 4·3 事件 이후부터祭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새마을 운동과 미신타파 등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포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제보자의 기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제보자]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김순직 (男 · 58)



① 名稱 : 醺祭, 마을제, 部落祭

② 祭神 : 天神

③ 祭日 : 음력 정월 초순 중에 丁日 또는 亥日을 골라 행한다.

④ 祭場 : 「보퉁담」에서 행해졌으나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다.

⑤ 祭官 : 初獻官 · 亞獻官 · 終獻官 3人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평소 청결한 사람을 택해 나이순으로 정하게 된다.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⑥ 祭儀管理 : 경비는 리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예산을 세워 리에서 거출하게 된다.

⑦ 入祭 : 전 리민이 일주일간 지성드리며 제관들은 청결한 집을 골라 합숙하고 謹身齊戒한다. 제물 정리자와 메 짓는 사람은 1~2명의 남자가 하게 되며 그외 다른 사람들의 출입은 禁止된다.

⑧ 禁忌 : 더러운 것을 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⑨ 祭服 : 도복(상주들이 입는 것과 같은 마복), 행경, 두건을 갖춘다.

⑩ 祭物 : 메(현지에서 지음), 五果, 돼지고기 등이 올려지며, 그외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돼지고기의 경우 내장을 씻어 다시 담고서 뜨거운 물에 한 번 담갔다가 꺼낸 채로 올린다.

⑪ 豫兆 : 예조는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⑫ 飲福 :祭가 끝나면, 고기를 삶아 나누어 먹는다.

⑬ 참고 : 예전에는 제관들이 모두 祭場에서 전날 밤을 새고 祭를 지냈으나, 후에는 전날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향물로 목욕하고 의관정제하여 아침에 祭場에 가기도 했다. 祭를 필하기 전에는 제관·집사 외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2) 당 곳 (제보자 : 황숙자 女·48, 한호생 女·60)

당곳은 오래된 민간신앙으로 포제가 행해지기 이전에도 있었으며 포제가 소멸된 후에는 포제의 祭儀기능까지도 흡수하여 다른 마을보다 크게 행해지고 있다.

① 堂의 名稱 : 동북 본향당, 일렛 당.

② 所在地 : 동북마을 입구 남쪽, 동북리 산 56번지(군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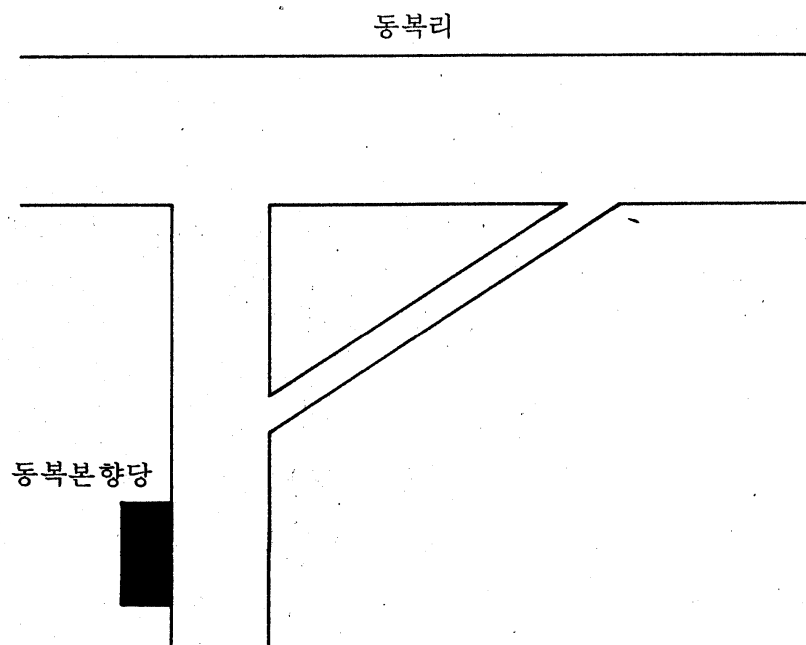
③ 神名 또는 본초 : 굴묵밭 할마님, 송씨 하르바님.

④ 祭日 : 포제가 행해졌던 당시에는 포제를 지낸 다음 정월 중에 치뤘으나, 대체로 음력 1월 7일에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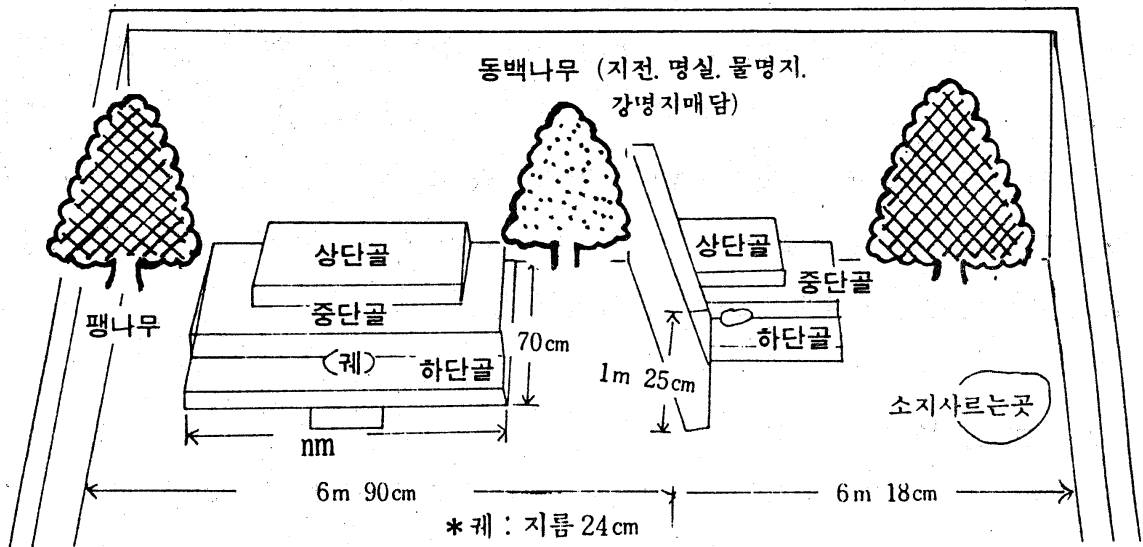
濟州島部落誌(Ⅳ)

- ⑤ 參加範圍 : 부락민의 대부분이 참여한다.
- ⑥ 禁忌 : 돼지고기를 금한다.
- ⑦ 祭物 : 메, 五果, 海魚, 돌레떡, 폐백 등을 올리며 祭酒는 옛날에는 감주를 썼으나 근래에는 소주·음료수를 쓴다. 폐백은 베·명주·무명·시라목 등에서 1필을 쓴다.
- ⑧ 豫兆 : 굿을 끝낸 다음 심방이 마을 전체의 일년 운수와 각 집안별의 운수를 점친다.
- 당굿의 모든 절차는 심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포제가 소멸한 후 마을의 큰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도시계획으로 현재 당의 위치가 도로화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곳에 당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 1〉 당의 위치도



〈그림 2〉 본향당 내부 도식



IV. 個人信仰

1) 조왕제 (제보자; 김무생 男·72, 한호생 女·60, 황숙자 女·48)

① 시기: 정월에서 3월 사이에 집안 식구들의 生氣를 고려하여 有識者로부터 택일을 받아 행한다.

② 금기: 제를 행하기 2~3일 전부터 대문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부정인의 出入을 禁止한다. 상을 당한다거나 해산하는 일 등, 마을 전체적으로 비린 일이 생기면 새로 택일하여 지낸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며, 이 제에는 남자가 관여하지 않는다.

③ 제물: 보통 약간의 떡을 준비한다. 메, 명태 (또는 동태), 과일, 지전 한 권, 시라목을 올리고 祭酒로 소주나 음료수를 쓴다.

부엌을 맡은 神인 조왕을 위하는 이 제는 조왕신에게 기원하는 한편, 가내의 여러 신 (문전, 안칠성, 밧칠성)에게 집안의 안녕을 빈다.

제사를 지낼 때 함께 조왕제를 행하는 경우는 문전의 음식을 걸어 부엌으로 가져가서 지낸다.

2) 산신 제

산신은 생산을 상징하며 집안이 산에 태웠을 경우 1~2년 1회 정도 지낸다. 무덤이 없고 깨끗한 곳을 택해 제를 행하기 일주일 이전부터 祭場에 금줄을 치고 祭日 전날은 향 삶은 물로 부정을 친다. 祭日은吉日을 택일하여 행하고 제물에는 메, 시루떡, 명태, 과일, 폐백을 올린다. 이 제는 여자들이 스님이나 심방을 빌어서 지내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면 길한 징조로 본다. 이때에도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3) 토신 제

3년에 한번 정도 정시의 택일을 받아 주로 남자가 주관하여 집안의 평안무사를 비는 제이다. 제물에는 시루떡, 편, 메, 채소, 폐백이 있다. 메는 큰 양푼으로 준비하며 상가지를 가운데 꽂는다. 채소에는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가 있고, 미나리는 생것으로 준비한다.

4) 돛 제

돛제는 3~4년 1회 정도 지내는 제로 송당에서 내려온 초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초상은 손톱으로 소 두 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한다.吉日을 택일하여 집안에서 저녁에 지낸다. 3일 정도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하고 동네에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제를 행하는 사람이 비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낸다. 제물은 당굿과 거의 같고 제를 지내지 않을 경우 자식 혼인시 가마꾼이나 말의 발이 잘리게 된다는지, 시중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게 된다고 한다. 이 초상은 일정한 곳에 좌정하지는 않으나 대를 물려가며 받들어야 한다.

5) 칠성 제

칠성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3년에 한 번 지낸다. 집에 우환이 있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을 때는 祭를 지내지 못하고 祭를 지내기 전 7일간 매일 향 삶은 물로 그릇을 씻고 목욕을 해야 한다. 祭物에는 밥 두 그릇, 과일 3종, 술(감주), 해어, 계란을 올린다. 이 祭는 심방을 빌어서 하거나 절에서 지내기도 한다.

6) 안할망 모심

농사 풍년기원제로 ‘안할망 모신다’고 하는 제가 있다. 이 祭는 6월과 동짓달 첫 소날에, 즉 새 곡식이 나오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지낸다. 우영에 노람지 놀을 만들고 그 안에 팔·콩·보리·조 등의 곡식을 집어 넣고서 풍년을 빈다.